

기본연구
2010-05

충남 관광위성계정(Chungnam
Tourism Satellite Accounts)
작성 위한 기초 연구

임재영

기본연구
2010-05

충남 관광위성계정(Chungnam Tourism Satellite Accounts) 작성 위한 기초 연구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39-7 03350

기본연구 2010 - 05

충남 관광위성계정(Chungnam Tourism Satellite Accounts) 작성 위한 기초 연구

임재영

발 간 사

일부 연구자들이나 연구기관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광현상의 경제적 측면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있어 왔으나, 다른 산업들과는 달리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특성 때문에, 이들은 표준화된 결과물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관광관련 경제활동의 규모와 수준 파악작업과 함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OECD와 UN, WTO 등 국제기구들에서 산업활동으로서 관광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규명하고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곧 관광위성계정 TSA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민계정체계(SNA)의 부속계정으로서, 관광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관광위성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 역시 관광위성계정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계정을 작성·보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지역 단위 관광위성계정인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 이로부터 관광관련 경제활동의 규명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연구원의 노력은 완성된 결과를 제공했다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인 조사와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미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들에서 제안하는 지침에 대한 해석에 일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조정과정이 시급하게 마무리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결과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향후 다른 지역들과의 공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연구가 우리 충청남도의 관광관련 경제활동 규명과 활성화에 있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임재영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관광이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다양한 부문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나 부가가치 창출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OECD나 UN, 그리고 WTO 등에서는 경제체계 내에서 관광산업의 규명과 실제 파악을 위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으로 대변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기구들은 서로간의 의견조정 과정을 통해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된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역단위에서까지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이 완성 또는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관광의 경제적 규모 및 그 영향을 측정하고, 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규모 측정 및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정책 수립 및 기업의 의사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경제 단위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 외에도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정리되고 제시되어 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충남의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제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의 내용과 실제 데이터의 처리과정 등에 대한 권고안을 리뷰하는 작업 등 주로 문헌연구(literature study)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사례의 오류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특히 국제기구들의 지침뿐만 아니라 실제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준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과정을 통해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충남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산업 및 경제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2장에서는 본격

적인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모든 경제통계 작성의 기준이랄 수 있는 UN이 경제통계체계와 관련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국민계정 체계(SNA)에 대해 한국은행(2004)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주계정인 국민계정과 부속계정인 위성계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다음 3장에서는 주 관심대상인 관광위성계정에 대해 UN과 OECD, 그리고 세계관광기구 WTO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관광경제 통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제 4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그동안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 TSA 작성과정에서 연구진들이 받아들여야 할 교훈 및 시사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남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과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4
제2장 국민계정과 위성계정	7
1. 국민계정체계(SNA)	7
2. 국민계정의 주요 내용	10
1)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10
2) 소득의 분배와 처분과정	12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13
3. 위성계정	15
1) 위성계정의 의미와 기능	15
2) 위성분석(위성계정)의 역할	17
제3장 관광위성계정	19
1. 부속계정으로서 관광위성계정 TSA	19
1)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배경 및 전개과정	19
2)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및 체계	22
2. 관광위성계정 세부항목의 개념 및 정의	27
1) 수요측면의 개념 및 정의	28
2) 공급측면의 개념 및 정의	33
3. 지역 관광위성계정	45

제4장 사례분석	48
1. OECD에 보고된 해외 관광위성 작성사례	49
1) 호주	51
2) 오스트리아	51
3) 덴마크	52
4) 핀란드	53
5) 프랑스	54
6) 아이슬란드	55
7) 멕시코	56
8) 뉴질랜드	57
9) 노르웨이	59
10) 폴란드	60
11) 스페인	62
12) 스웨덴	63
13) 기타: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연구원(2005)의 해외사례	64
2.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66
1) 캐나다 PTSA 작성 배경	67
2) 기본개념	68
3) PTSA 작성방법	69
3. 우리나라 관광위성계정	74
1) KTSA의 작성과정	75
2) 수요측면	77
3) 공급측면	87
제 5 장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및 과정	92
1.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과제도출	92
1) 사례분석 통한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시사점	92
2) 우리나라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문제점	94

2.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및 과정	100
1) 연구내용 및 방법	100
2) 연구 추진체계	109
참고문헌	111

표 차례

<표 2-1>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	10
<표 3-1> 세계 관광위성계정 연혁	21
<표 3-2> 관광위성계정의 구성	25
<표 3-3> 관광소비 분류	31
<표 3-4> 관광상품 리스트	35
<표 3-5> 관광 핵심산업 리스트	39
<표 3-6> 공급측면에서 관광의 규모 결정 지표들 사이의 관계	43
<표 4-1> 세계 각국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사례 종합	65
<표 4-2>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비용 세부구조	79
<표 4-3> 관광 내구재 구입품목 및 지출비용	80
<표 4-4> 국내항공사 내국인 국제선 이용현황	80
<표 4-5> 내국인 해외관광 현황	81
<표 4-6> 2004년 기준 외래관광객 지출비용 구조	84
<표 4-7> 내국인 해외관광 소비구조	86
<표 4-8> 관광수요계정 종합	87
<표 4-9> 관광부문 부가가치	89
<표 4-10> 관광부문 고용현황	90
<표 4-11> 관광부문 고정자본형성 현황	91
<표 4-12> 관광공급계정 종합	91
<표 5-1> 강원도 동계스포츠 관련 산업생산 규모 추정 결과	99
<표 5-2> 지역의 구분	107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6
(그림 2-1) 경제의 순환과정	8
(그림 2-2) 국민계정체계(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9
(그림 2-3)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11
(그림 2-4) 소득의 분배와 처분	13
(그림 2-5) 국민계정과 위성계정	16
(그림 3-1) 관광위성계정 체계	24
(그림 3-2) WTO의 관광객 분류체계	29
(그림 3-3) 관광상품(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34
(그림 3-4) 관광공급과 소비 분석구조	38
(그림 3-5) TSA와 지역 TSA의 관계(캐나다 PTSA의 예)	46
(그림 4-1) 캐나다 PTSA의 결과표	74
(그림 4-2) 한국 관광위성계정 작성 절차	75
(그림 4-3) 수요 및 공급측면 추계과정	76
(그림 4-4)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총액	77
(그림 4-5)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추계방법	77
(그림 4-6) 관광부문 수출 추계방법	82
(그림 4-7) 관광부문 수입 추계방법	85
(그림 5-1) 단계별 연구내용	102
(그림 5-2) 연구의 진행과정	104
(그림 5-3)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작성과정	105
(그림 5-4) 연구 추진체계	109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와 여가시간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활동 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광이 부가가치(value added)나 고용, 소득, 정부수입(government revenue) 등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다양한 부문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의 실체규명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광의 지역경제 기여도나 부가가치 창출규모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관광통계의 생산은 주로 관광객들의 수와 그들의 체재일수, 관광수지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관광상품(tourism commodities)의 수요와 공급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곧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관광산업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정보가 충실하게 제공되지 못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관광은 그 특성 상 수요측면이 우선되는 경제행위이다. 그러나 공급측면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틀 속에서 관광산업의 수급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CEC¹⁾, OECD, WTO and UN, 2001 외). 이에 따라 국민계정의 중심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 또는 주제에 특성화된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s)²⁾의 작성이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제안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로 199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나 UN, 그리고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WTO) 등에서는 각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표준화된 정의와 함께 이의 실체파악을 위한 지침을 각 회원국들에게 권고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국제기구들에서는 경제체계 내에서 관광산업의 규명과 실체 파악을 위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바, 이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s, TSA)으로 대변될 수 있다(WTO, 1999,1998; OECD, 1999a,b, 1998 외).³⁾ 특히 최근 들어 각 국제기구들은 서로간의 의견조정 과정을 통해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된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기 시작하였으며(CEC, OECD, WTO and UN, 2001), 캐나다와 핀란드, 덴마크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국민 경제 단위(national economy unit)를 넘어서 지역단위(regional economy unit)에서까지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이 완성 또는 시도되고 있는 상황이다(Zhang and Brandt, 2006; Konttinen 2006; Barber-Dueck and Kotsovos, 2002 외).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OECD 회원국으로서 OECD의 권고에 따라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인 관광위성계정을 개발·제출하고 있다.⁴⁾

따라서 이들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관광의 경제적 규모 및 그 영향을 측정하고, 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해 관광산

2)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은 국민계정 내에서 세부내용을 반영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거나 본 계정체계와 구조가 맞지 않는 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정임. 이의 대표적인 예로 환경위성계정, 보건위성계정, 관광위성계정 등이 있음.

3) 관광통계 및 관광위성계정 작성 등에 관한 국제적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관광통계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Tourism Statistics)은 2006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결과가 논의되어 왔음(<http://www.oecd.org>).

4)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2000)에 의해 총 2회에 걸쳐 한국 관광위성계정(Korean Tourism Satellite Account, KTSA)이 작성됨.

업의 규모 측정 및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은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정책 수립 및 기업의 의사결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지역개발의 수단으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따른 자원의 배분 및 재배분(resource allocation & reallocation)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자료의 생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특히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이론의 존재 의의를 감안할 때, 관련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작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목적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관광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통계 및 관련 이론의 정비과정이 필요하며, 이들의 적용은 실제 관광 관련된 공공 또는 민간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작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점증하는 관광부문의 중요성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관광경제 통계의 정비를 위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표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관광위성계정으로 대변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이나 도시단위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재,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이론의 적용은 지역 단위에서 더욱 실효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이 진행되거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경제 단위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강원도의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 외에도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강원도의 지역관광위성계정의 경우, 기존 전국단위에서 이루어진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한국관광위성계정(Korean TSA) 작성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학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OECD와 UN, WTO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침을 적용하는데 통일된 안 제시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임재영 · 류종현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말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시도하고 있는 강원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⁵⁾ 등의 관련 연구진들은 관광위성계정 작성과 관련되어 전국 관광위성 작성과정 상의 오류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상호 의견 조율을 바탕으로 지역 단위 관광위성계정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국내에서 표준화된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 그동안 정리되고 제시되어 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충남의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앞서 설명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광위서계정의 내용과 실제 데이터의 처리과정 등에 대한 권고안을 리뷰하는 작업 등 주로 문헌 연구(literature study)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사례의 오류를 점검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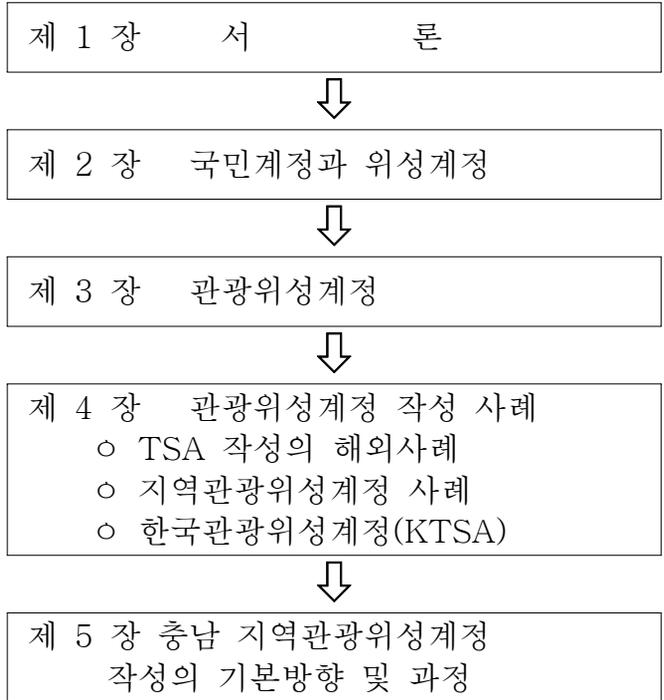
특히 국제기구들의 지침뿐만 아니라 실제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한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시사점 및 과제 도출작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역단위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의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준이 되게 하고자 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충남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 이를 통한 산업 및 경제

5) 개별 광역시도의 발전연구원 내 담당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연구실장, 충남발전연구원 임재영 책임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의 김시백 부연구위원 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1-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연구의 내용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진다. 2장에서는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이해에 앞서서, 모든 경제통계 작성의 기준이랄 수 있는 UN이 경제통계체계와 관련 전 세계 국가들에 권고하고 있는 국민계정 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통계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주체랄 수 있는 한국은행(2004)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계정(main account)인 국민계정과 부속계정인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설명된다. 다음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관광위성계정에 대해 UN과 OECD, 그리고 세계관광기구 WTO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특히 이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관광경제 통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된다.

제 4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그동안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통해 작성과정 상 연구진들이 받아들여야 할 교훈 및 시사점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충남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과 과정 등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이 제시될 수 있으며, 향후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는 노하우(know-how)를 통해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합성 있는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림 1-1)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국민계정과 위성계정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은 그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위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주계정(main account)에 부속되는 계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계정(main account)인 국민계정(national account)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국민계정에 대한 기본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부속계정으로서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및 구조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계정과 관광위성계정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계정(regional accounts)과 지역 관광위성계정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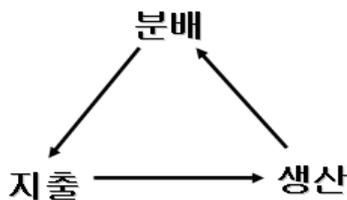
1. 국민계정체계(SNA)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UN이 마련한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그리고 국제수지표를 통합·편제해 오고 있다. UN은 1993년에 새로이 개정된 국민계정체계(SNA1993)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의 편제를 각국에 권고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이 지침에 따라 이행가능한 사항을 일부 수행하였으며, 2000년 기준 국민소득통계 1차 개편이 끝난 2004년 3월에는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권고한 중요 이행조건들을 이행하고 있다(한국은행 2004). 이러한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제시되는 국민계정체계에 대한 설명은 주로 한국은행(2004)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다.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의 활동결과와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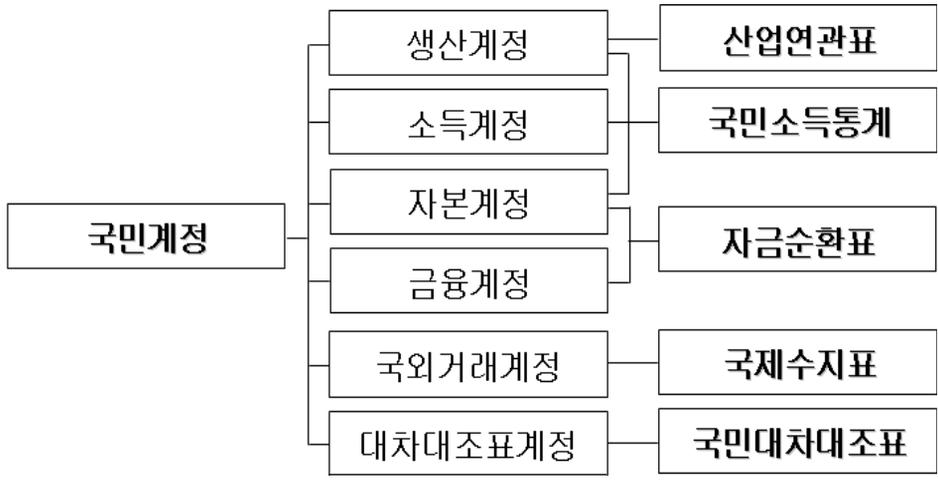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그리고 국민대차대조표의 ‘5대 국민경제통계’로 구성된다.

이들 5대 통계는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서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대두된다. 국민계정은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국민소득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5대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을 일정한 계정양식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계정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 분배 → 지출 → 생산 …”의 순환과정(circulation process)을 여러 계정을 통하여 나타내 준다. 구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내역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 내역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 내역은 자본계정 및 금융계정에 그리고 ‘국외와의 거래’ 내역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함으로써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2-1) 경제의 순환과정

과거에는 이와 같은 국민경제의 순환을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을 통하여 별개로 파악하여 왔으나,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1993)에서는 이들 각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계정이라는 하나의 체계로 묶어내고 있다. 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대응관계를 보면 (그림 2-2)와 같다



- 한국은행(2004)에서 인용.

(그림 2-2) 국민계정체계(국민계정과 5대 국민경제통계의 관계)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는 5대 국민경제통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통계와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는 모두 일정 기간의 흐름(flow)을 기록한 유량계정인 반면 국민대차대조표는 스톡(stock)을 기록한 저장계정이라는 점이다. 종합하면, 국민경제 전체의 실물과 자금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국민계정이다.

<표 2-1>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

구분	수록 내용	비고
국민소득통계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어떻게 처분되는가(flow)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 (실물흐름 중심)
산업연관표	특정 상품의 생산위해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투입되는가(flow)	국민경제의 제조원가명세서 (실물흐름 중심)
자금순환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기록	국민경제의 현금흐름표
국제수지표	국민경제가 국외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내역(flow) 기록	외화수지계산서
국민대차대조표	일정시점에서 국민경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stock)를 모두 기록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

- 자료: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 국민계정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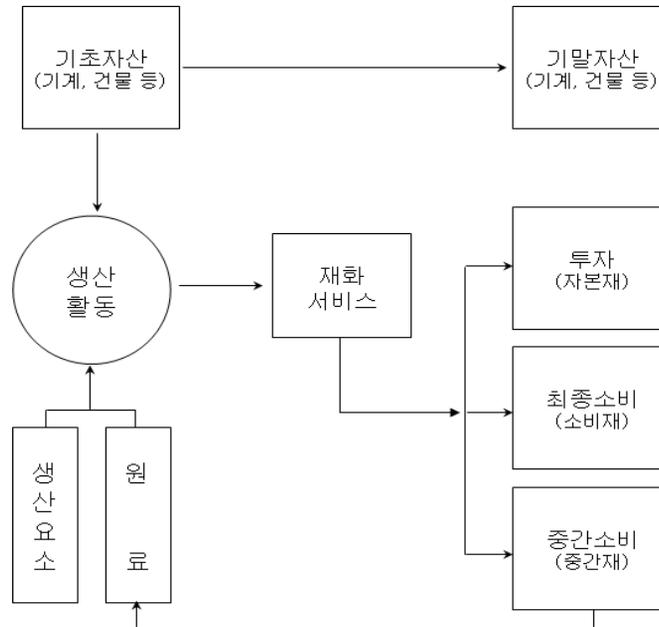
국민경제의 순환과 국민계정 내 각 계정체계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 이에 대한 설명에서는 국민계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소득의 분배와 처분’, 그리고 ‘자본의 조달과 축적’ 등을 중심으로 제시된다.⁶⁾

1)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사람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등의 생존적 욕망과 정신적, 문화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용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생산자에 의해 공급되며,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자나 가계 등

6) 설명의 편의를 위해 국민경제는 외국과의 거래가 없는, 즉 폐쇄경제(closed economy)임을 전제함.

에 의해 구입됨으로써 처분된다. 이러한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3)과 같다.



- 한국은행(2004)에서 인용.

(그림 2-3)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앞의 그림에서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과 같은 기초자산에 노동력 등 생산 요소와 원료를 투입하여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그 용도에 따라 자본재나 중간재 또는 소비재로 처분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 자본재(capital good)는 생산자가 기계나 건물 같이 오랫동안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를 말한다. 그리고 중간재(intermediate good)는 생산자가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며, 소비재(consumption good)는 가계나 정부가 일상생활 및 행정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따라서 중간재와 소비재의 대부분은 당기에 소모되나 일부 소모되지 않은 잔여 중간재와 소비재(재고자산) 및 자본재는 생산자의 자산에 추가되어 다음 기의 생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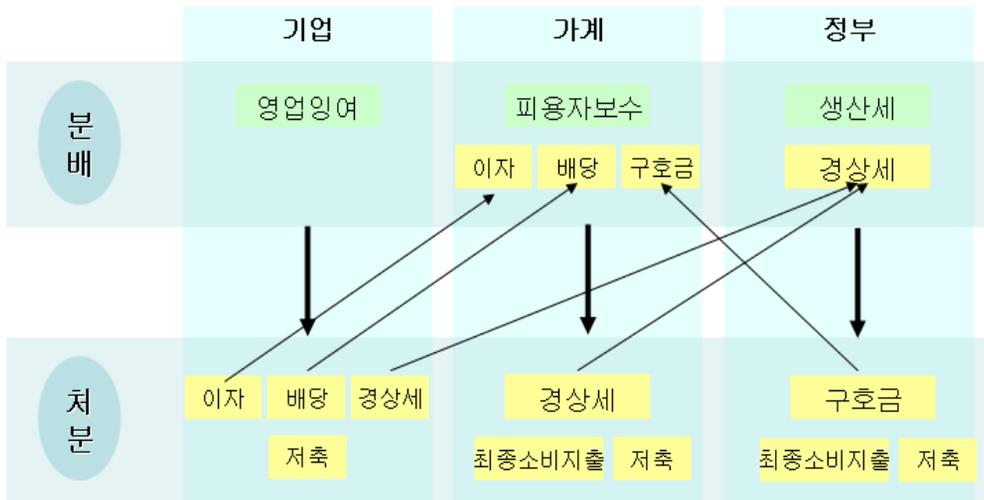
이용되거나 판매를 위해 공급된다.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처분 내역은 본래 산업연관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국민계정에서는 이를 생산계정에 나타내고 있다.

2) 소득의 분배와 처분과정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이 소득은 노동, 자본, 경영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경제주체에게 분배되어 일부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자금으로 쓰이고 나머지는 저축으로 남아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때 소득은 생산자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창출해낸 부가가치로서, 이는 일차적으로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제주체들에게 분배된다. 구체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가계(household)에 분배되는 급여와 임금 즉, 피용자보수와 생산활동을 주관한 생산주체의 몫인 영업잉여로 대별된다.⁷⁾

그 외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차적으로 생산비에 포함되나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생산세가 있다. 이 외에도 생산과정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생산주체에게 실물 또는 금융자산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소득이 있다.

7) 이처럼 생산과정에 참여하거나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고 분배받는 소득을 본원소득(primal income)이라 함.



- 한국은행(2004)에서 인용.

(그림 2-4) 소득의 분배와 처분

이와 같이 비용자보수, 영업잉여, 재산소득 등으로 분배된 소득(본원소득)은 여러 가지 형태로 경제주체 간에 재분배되고, 또한 이전되어 최종적으로 각 경제주체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 즉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이 결정된다. 이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최종소비지출)에 쓰이거나 저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4)와 같으며, 국민계정에서는 소득계정에 잡히게 된다.

3) 자본의 조달과 축적

자본의 조달과 축적은 미래의 수익을 위하여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축적(투자)하는가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다. 각 경제주체의 자본조달 및 축적형태를 보면, 기업은 기존 생산시설의 대체 또는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고 공장부지를 매입하는 등 자본축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우선 기업의 저축과 기계, 건물 등의 소모를 감안하여 비축한 자금인 감가상각(depreciation)비로 충당하며, 모자라는 자금은

은행이나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한다.

정부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청사의 신축이나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을 통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된다. 이를 위한 자본조달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자체의 저축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자금은 국공채 등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한편 가계는 당기에 소비지출로 처분하지 않고 저축으로 남은 소득을 은행 예금 및 채권 등의 금융자산 형태로 운용한다. 이는 결국 자금이 모자라는 기업이나 정부에 공급되어 투자재원으로 이용된다.

관광위성계정은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관광부문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위성계정의 하나이다. 새로운 국민계정체계⁸⁾에서는 환경, 관광, 교육, 보건복지 등 경제, 사회적 관심분야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위성계정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지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해 관광의 경제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위성계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위성계정에 대한 설명은 주로 한국은행(1997)의 「1993 국민계정체계(SNA1993)」의 내용을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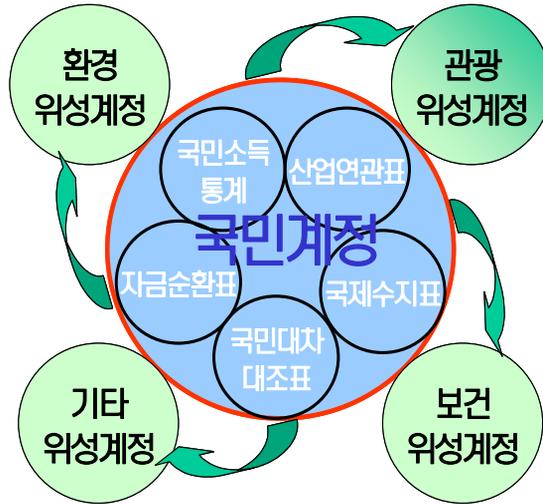
8) 1953년 UN에서 「국민계정체계와 부표(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국이 국민소득을 추계하는데 있어 표준안으로 이용하도록 함. 그 후 1968년에 새로운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발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후 1993년에 개정된 국민계정체계(SNA1993)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의한 국민계정 편제를 세계 각국에 권고하고 있음(한국은행, 2004).

3. 위성계정

1) 위성계정의 의미와 기능

앞서 설명한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계정체계는 통합된 계정구조를 가진 중심체계(central framework)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중심체계에서 포괄하는 경제활동 범위 내의 활동은 일관성을 바탕으로 모두 기록된다. 반면 이러한 중심체계는 여러 경제상황이나 분석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관광과 환경 등과 같은 특정 측면들의 범주와 개념들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계정의 중심체계에 추가적 또는 상이한 측면이 들 반영할 요구가 있을 경우 보완적 혹은 대안적 범주와 개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한국은행 1997). 이를 통해 위성계정 또는 위성체계의 존재 의의가 발생한다. 즉, 특정의 관심분야에 대해 중심체계에 과도한 부담이나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 신축적인 방법으로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확대할 필요에 따라 위성계정은 작성된다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위성계정을 연결하여 이들 상호간의 분석도 가능하게 된다.



-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그림 2-5) 국민계정과 위성계정

이러한 국민계정과 위성계정의 관계를 표현하면 (그림 2-5)와 같다. 정리하면,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의 중심체계와 연계되어 있으며 중심체계를 통해 통합된 경제통계의 주요부분과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위성계정은 특정 분야 또는 주제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나 주제에 특화된 정보체계와도 연계된다. 한국은행(1997)에서 밝히고 있는 위성계정 또는 위성체계의 내용과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특정 사회관심사에 대하여 기능별 또는 교차 부문별로 추가적 정보 제공,
- ② 국민계정에 추가적으로 개념적인 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때 보완적 또는 대체적 개념, 분류체계 및 회계구조를 사용,
- ③ 인적활동의 비용 및 편익에 대한 대상범위를 확대,
- ④ 적절한 분석지표 및 경제 총량치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진일보한 분석이 가능,
- ⑤ 화폐적 회계시스템에 물량자료를 연계한 분석, 등

2) 위성분석(위성계정)의 역할

위성분석(satellite analysis)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중심체계의 개념과 괴리되지 않으면서 중심체계를 보완하는 요소를 도입하여 이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교육, 관광, 환경보호지출 등과 같은 특정 분야와 관련된 계정의 작성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은 특정 분야의 계정을 중심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가능하지 않는 경우, 특정 분야의 위성계정체계에서 이를 처리함으로써 국민계정체계(SNA)의 신축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국민계정체계를 대체하는 개념을 기초로 하는데, 이는 상이한 생산범위, 소비 및 고정자본, 자산범위 등의 개념 확대, 그리고 자연자산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부(富)의 개념 등을 도입하여 분석하거나 또는 이들 몇 가지 대체적 개념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과 같이 중심체계의 정의 및 분류체계의 변동을 수반하고 있으나, 이의 특징은 대체적 개념의 사용에 있다. 여기서 대체적 개념이란 중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보충적인 총량치(partial complementary aggregate)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보다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유형은 국민계정체계 중심체계의 테두리를 넘어서 국민계정 작업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현행 국민계정 작업보다 더 자유롭게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실행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중심체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UN의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방법을 권고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민계정체계에서는 환경계정에 대해 거론하면서 하나의 계정구조를 예시하고 있으나 이를 최종적인 형태로 단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며, 개발가능한 여러 계정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계정이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다.⁹⁾

9) Pyatt and Round(1985) 등 여러 선행연구자들은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의 작성과정에서도 계정의 구조에 대해 특정한 제한을 두지 않음을 명

위성분석은 국민계정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상이한 목적을 충족시키길 수 있다. 그 하나로서 중심체계와 연관시키면서 체계적으로 한 분야에 대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계정구조를 구축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성체계는 중심체계와의 관계에서 볼 때 모든 경제활동을 포괄하지는 못하며 부분적인 영역에서만 자기정합적(self-consistent) 구조를 가지게 된다. 즉, 위성체계 또는 위성계정은 제도적 성격이 강한 중심체계의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능적인 측면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능적 관점에 보다 역점을 두기 위하여 위성계정은 경제활동별 및 생산물별 분석을 확대하고 목적별 접근법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의 ‘기능지향적 위성계정(functionally oriented satellite accounts)’의 체계를 형성한다. 기능지향적 위성계정은 관광, 문화, 교육, 보건, 사회보장, 환경보호, 연구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 이는 목적과 분석대상 그리고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에 따라 계정의 구조는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임.

제3장 관광위성계정 (tourism satellite account, TSA)

1. 부속계정으로서 관광위성계정 TSA

1)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배경 및 전개과정

전 세계적으로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는 문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기존 관광을 통한 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이에 대한 관심을 충분하게 충족시켜주지 못하였다(CEC, OECD, WTO and UN, 2001; WTO, 2000, 1999a,b; OECD, 1999 a,b,c, 1998 외). 구체적으로 기존의 관광통계는 방문객 수나 그들의 체제일수, 방문목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부가가치나 고용, 소득창출, 정부수입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들에 대해 오랜 기간 많은 국가 및 국제기구들 사이의 논의가 존재해 왔다. 경제적 관점에서 수요 측면이 강조되는 관광의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 활동과 함께 거시경제적 기본변수에 대한 관광관련 공급부문의 영향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관광의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경제체계 내에서 정책노력을 통해 그의 효과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일반적인 국민계정체계 내에 구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관광의 수급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광위성계정이 국제기구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관광위성계정은 기존 국민계정 체계 내에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었던 관광분야

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국민계정의 부속계정이라 할 수 있는 위성계정이다.

관광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결과는 이미 국민계정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관광산업은 타 산업부문과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자체 계정과목을 갖지 못한 경제활동으로 간주되어 왔다(OECD 1998). 즉,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산되고 소비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이미 다른 산업부문의 계정과목에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실체와 크기는 정확하게 계량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민계정을 근간으로 관광산업의 실체와 크기를 설명할 수 있는 관광위성계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제기구들에서는 각 회원국들에게 이의 작성을 권고하게 되었다(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0).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관광산업의 경제적 크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관광위성계정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관광통계 기준이 서로 상이하야, 불과 얼마 전까지도 관광위성계정 작성에 관한 통일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특히 최근 들어 국제기구들은 관광위성계정 작성방법에 관한 이견조정을 통해 국제 표준의 관광위성계정 작성방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1999)에서는 WTO(1999)가 제시한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999년 6월에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관광위성계정을 위한 국제표준 방법론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표 3-1> 세계 관광위성계정 연혁

연도	회의	출판	주최/저자	제목	내용	회의장소
1987		○	캐나다 정부	관광위성계정	관광위성계정 제안	
1991	○		WTO 와 캐나다 정부	국제관광통계회의	각 국가에 관광위성계정 소개	캐나다 오타와
	○		OECD	관광경제계정 (TEA Manual)	관광과 관련하여 통계적 측정이 어려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공급과 소비의 재확립 및 package tours에 관한 통계관리 방안제시	
1993		○	UN	국민계정체계93	SNA68을 1993 SNA으로 발전시킴	
1994	○		UN & WTO	관광통계에 관한 권고	관광 통계를 위한 정의 및 분류기준제시	
	○		캐나다 통계청 CTC	캐나다 관광위성계정	캐나다 TSA개발 결과 (최초의 TSA 작성국가)	
1997		○	노르웨이 통계청	노르웨이 관광위성계정	노르웨이 TSA개발 결과	
1998	○		WTO	관광위성계정	WTO의 TSA개발 지침서 (3번째 초안)	
	○		미국	미국 관광위성계정 1992	미국 TSA개발 결과	
	○		OECD	OECD회원국을 위한 관광위성계정	OECD 회원국을 위한 TSA개발 지침서	
1999	○		WTO	관광위성계정: 개념적 틀	WTO의 TSA개발을 위한 개념적 틀	
	○		WTO	관광의 경제적 영향 측정에 관한 국제회의	관광위성계정의 공통적 개념의 틀 개발 협의	프랑스 니스
	○		WTTC	1999년도 관광위성계정 연구 측정과 예측	WTTC의 경제모형을 이용한 153개국의 TSA결과	
	○		뉴질랜드 통계청	관광위성계정 1995	뉴질랜드 TSA개발 결과	
	○		OECD	OECD의 관광위성계정 지침서 초안	OECD의 TSA개발 지침서 초안	
2000		○	UN통계국	TSA: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 (TSA:RMF)	관광위성계정 권고 틀을 채택	
	○		캐나다 관광청과 관련기관	TSA: Credible Numbers for Good Business Decisions Conference	관광청에 회부된 TSA:RMF를 바탕으로 TSA: Credible Numbers for Good Business Decisions Conference를 개최	캐나다 밴쿠버
2002		○	WTO	관광위성계정 이설(異說)	TSA에 관한 다른 견해들을 비교하고 내용표를 작성	

-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참고적으로 <표 3-1>에는 WTO, OECD, WTTC 등의 관광 관련 국제기구 및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었던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연혁이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CEC와 OECD, 세계관광기구 그리고 UN(2001)이 공동으로 통합된 안(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¹⁰⁾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적으로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UN에 의해서 동일한 제목의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및 체계

먼저 각 국제기구별로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및 기능을 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세계관광기구(WTO, 1999)

관광위성계정은 관광분야 전반에 걸친 경제적 크기 및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작성되는 표들이다.

10) 상기 보고서에서는 이 작업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프랑스에서 개별 국가단위로 위성계정을 개발하려고 했으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1970년대임을 제시하고 있음

□ WTTC¹¹⁾(WTTC, 1998)

관광위성계정은 여행 전과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에 여행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 및 자본의 지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대외부문 등 경제주체의 여행과 연계된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가 관광위성계정이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8)

관광위성계정은 관광의 제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관광 경제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책분석 및 관광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분석, 경제모형 설정 등을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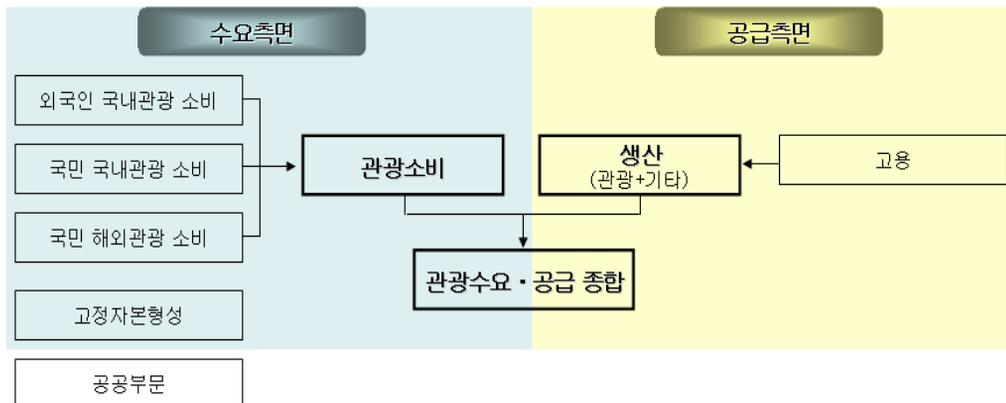
즉, 관광위성계정은 ‘관광과 관련된 각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tables)’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국민계정이 다양한 부속표로 구성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이는 앞의 2장 경제의 순환과정 (그림 2-1 참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광 관련 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생산과 관련된 순환과정이 제시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WTO나 OECD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의 작성목적은 다음과 같다.

- 관광통계 작성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과 국민계정체계의 제 원칙에 입각한 자료의 생산
-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국제간 비교 가능한 계정 제시
-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의 효과 분석
- 정책결정자들에게 관광의 사회경제적 기능 및 제 영향에 대한 통찰력 제공
- 관광 부가가치(tourism value-added)의 추계
- 관광산업의 고용에 관한 정보 제공

11)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

- 관광산업의 생산기능 및 관광산업과 타 경제부문과의 관계 제시
- 관광투자와 생산사이의 관계분석을 위한 수단제공
- 관광산업의 자본관련(capital vase)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 관광분석모형의 기본 틀 제공



(그림 3-1) 관광위성계정 체계

결국 이러한 작성목적은 곧 관광위성계정의 기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광위성계정의 구성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에 따른 관광위성계정 표들의 관계는 (그림 3-1)에 정리된 바와 같다.

이들 기구에서 권고하는 안에 따르면 관광위성계정은 다수의 부속 계정표로 구성되며, 각각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관광위성계정의 기본구조는 경제 내에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체계(general equilibrium framework)를 기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그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 특히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앞의 (그림 3-1)의 체계를 바탕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와 WTO(2000, 1999, 1998) 등에서 권고 및 제안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을 구

성하는 표들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세계관광기구 WTO에서 제안하는 관광위성계정의 구성안이 여러 국제기구들에 의해 수용되면서 CEC, OECD, WTO and UN(2001)의 통합된 권고안에 포함된다. 참고적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과 WTO의 안의 차이점은 <Table 4>와 <Table 6>의 내용이다.

<표 3-2> 관광위성계정의 구성

구분	CEC, OECD, WTO and UN	WTO
Table 1	관광소비구조: 외국인 국내관광	관광소비구조: 외국인 국내관광
Table 2	관광소비구조: 내국인 국내관광	관광소비구조: 내국인 국내관광
Table 3	관광소비구조: 내국인 국외관광	관광소비구조: 내국인 국외관광
Table 4	국내 관광소비 종합 (Table 1+ 2)	관광소비구조 종합 (Table 1+ 2+ 3)
Table 5	관광산업 및 기타산업의 생산계정	관광산업 및 기타산업의 생산계정
Table 6	국내 관광공급 및 소비 종합	관광공급 및 소비 종합
Table 7	관광산업의 고용	관광산업의 고용
Table 8	고정자본형성	고정자본형성
Table 9	관광공공소비	관광공공소비
Table 10	관광통계 일반*	관광통계 일반

- *: Non-monetary indicators.

- 자료: CEC, OECD, WTO and UN(2001), WTO(2000, 1999, 1998),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등.

구체적으로 WTO의 안에서는 <Table 4>가 <Table 1>부터 <Table 3>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는 표인 반면, CEC, OECD, WTO and UN의 안에서 이 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소비지출을 별도로 구체화하는 표이다. 또한 WTO의 <Table 6>이 앞의 표들을 종합하여 관광공급과 소비를 정리한 반면, CEC, OECD, WTO and UN의 <Table 6>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공급과 소비지출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과정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간의 관광객 이동과 이를 통한 소비지출의 흐름이 핵심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CEC, OECD, WTO and UN의 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관광위성계정 구성표 중 <Table 1>부터 <Table 3>까지는 외국인 국내여행(Inbound Tourism), 국민국내여행(Domestic Tourism), 그리고 내국인 국외여행(Outbound Tourism) 등으로 구분하여 품목별 관광소비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로 수요측면에서 관광소비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특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되는 관광객(방문객)들의 최종소비지출(visitor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과 관계된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구조를 제시한다. 그리고 <Table 4>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소비를 종합하는 표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외국인 국내여행과 국민들의 국내여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광상품의 소비구조를 제시한다.

반면, <Table 5>는 산업측면에서 관광산업의 생산계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서는 관광산업(tourism industries) 외에 기타 산업(other industries)의 생산구조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관광산업의 생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Table 6>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내국인 및 외국인들의 관광소비지출과 국내에서 공급되는 관광상품의 규모를 종합하는 표이다. 이 외<Table 7>과 <Table 8>는 관광상품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광산업부문의 고용과 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제시하며, <Table 9>는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의 관광소비구조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Table 10>은 화폐적 가치로 나타나지 않는 지표들, 즉 관광객의 특성을 설명하고 관광산업 사업체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통계 일반을 제공한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표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축약된 형태의 관광위성계정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전체적인 계정의 체계와 내용은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하위계정을 통합할 수 있는데, OECD(2000)에서도 관광위성계정 작성에 있어 각국의 여건을 고려한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이 제시되기 전,

관광위성계정을 구성하는 표들은 각 기구별로 그 구성 및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표준화된 관광위성계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 관광위성계정 세부항목의 개념 및 정의

관광위성계정을 포함한 관광관련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관광과 관련된 경제주체와 그들의 활동들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관광 소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관광 또는 관광객(tourist)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들이 소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과 유형, 그리고 이들을 생산하는 산업의 규모 등은 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에서는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념 및 정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본항목들의 개념 및 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민계정체계 뿐만 아니라 관광위성계정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양 측면에서 적용되는 항목들의 개념 및 정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에 대한 설명은 주로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이외 문화관광부와 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의 내용이 추가된다.

1) 수요측면의 개념 및 정의

① 방문객(visitor)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관광 관련 소비의 주체로서 방문객(visitors)을 언급하고 있다¹²⁾. 즉, 방문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소비활동과 이와 관련된 생산활동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방문객이 관광소비의 주체이며, 이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결국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및 관광 GDP 개념과 연결된다. 따라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문객의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방문객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관련 소비 및 생산의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헌을 살펴보면 방문객(또는 관광객)의 정의는 다음의 기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각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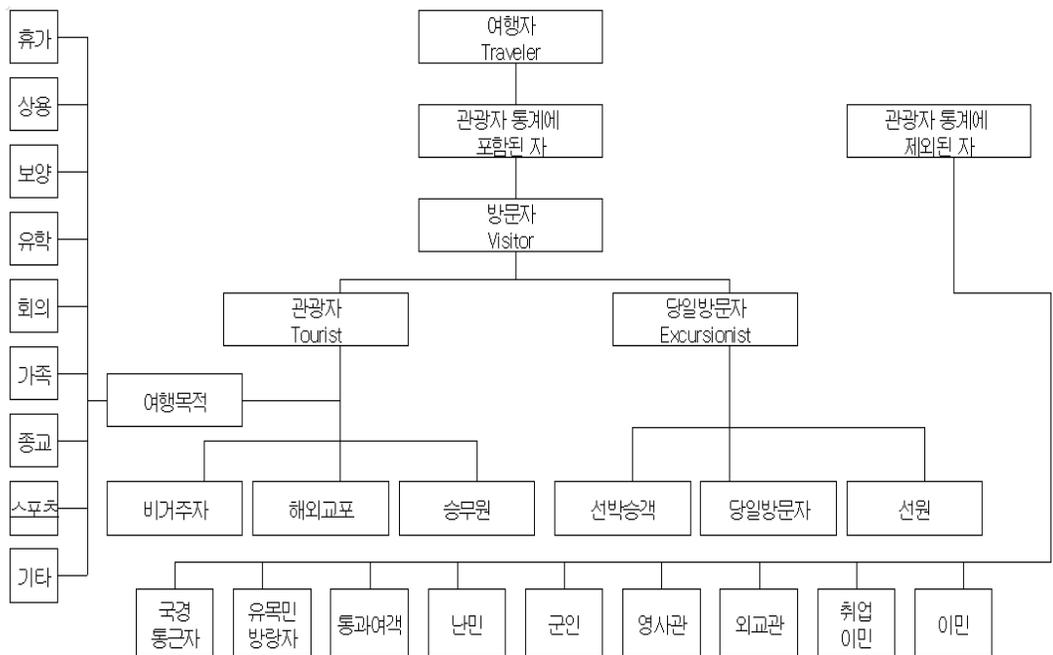
- ① 일상생활권(usual environment),
- ②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 ③ 방문목적(purpose of the visit) 등

단, 여기서는 국제기구들의 표준적인 권고안이라 할 수 있는 CEC, OECD, WTO and UN(2001),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는 방문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2) 엄밀하게 말한다면, 방문객(visitor)과 관광객(tourist)은 동일한 개념이 아님. 그러나 국제기구들에서는 관광관련 소비활동의 주체를 방문객으로 규정하고 있음.

방문객(visitors)은 자신들의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12개월 미만을 타지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여행목적이 방문지 내에서의 금전적 보상을 수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탈 일상생활권’과 ‘12개월 미만’, ‘금전적 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활동’이라는 점이다. 먼저 탈 일상생활권의 개념은 결국 관광이 공간을 극복하는 활동의 개념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장기간 체류하는 방문객의 활동은 배제시키고 있다. 특히 여행목적이 있어 여행지에서의 소득창출 활동을 염두에 둔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결국 앞서 제시한 방문객 정의기준에 보다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재인용

(그림 3-2) WTO의 관광객 분류체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들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해 여행을 준비 중인 잠재적 방문객 및 여행을 마친 방문객들의 관련소비¹³⁾까지도 관광관련 소비주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별장이나 second home 등의 경우, 장기 거주자들 같이 방문객(관광객)들의 여행활동이 수반되지 않음에 불구하고, 이들이 관광위성계정의 주 관심사인 경제적 활동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적으로 다음의 그림은 방문객, 즉 관광객의 분류를 나타내고 있다(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② 관광소비(Visitor consumption)

관광소비는 대체적으로 국민계정체계의 최종수요 개념과 부합된다. 이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중간재 수요로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소비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영향 평가의 핵심이 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소비는 여행 전 · 여행 중 · 여행 후 발생하는 방문객들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관광소비는 일상 생활권을 떠나서 여행을 하고 있거나 여행을 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으나,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는 관광객의 일상 생활권 내에서도 발생된다. 예를 들어 항공권 구입은 방문객의 거주지역, 즉 그들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모든 관광소비가 방문객들의 일상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데 있어 관광소비가 발생한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광소비를 분류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관광소비는 크게 국민국내 관광소비와 국민 해외관광소비, 그리고 외국인들의 국내관광소비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13) 여행시 촬영한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는 행위 등.

<표 3-3> 관광소비 분류

구분	내용
국민국내관광소비 (A) (Domestic tourism consumption)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국내관광활동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소비활동. 이러한 소비활동에는 해외에서 생산(수입)되었거나 비거주민(국내의 해외 국적자)에 의해 생산되어 국내 경제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함.
국민해외관광소비 (B) (Outbound tourism consumption)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 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비활동. 관광객의 거주국에서 생산되고 여행을 위해 구매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국제적 교통수단에 대한 구매는 운수회사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함.
외국인 국내관광소비 (C) (Inbound tourism consumption)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활동.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 구매된 제품 및 서비스는 수입품일수도 있음.
국내관광소비 (D = A + C) (Internal tourism consumption)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소비로서, 거주민 외에 비거주민(외국관광객) 모두에 의한 관광소비를 뜻함(국내 국민관광+ 외국인 국내관광)
국민관광소비 (E = A + B) (National Tourism Consumption)	장소에 상관없이 내국인 방문객에 의한 총 관광소비임. 이러한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 국내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수입품, 외국인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함(국내국민관광+ 내국인 해외관광)

- 자료: CEC, OECD, WTO and UN(2001),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이중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관련 소비활동의 총합을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로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관광소비 개념은 관광부가가치 및 관광 GDP의 측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엄밀히 말한다면 국민해외관광의 경우 역시 관광 GDP의 추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는 관광부가가치 및 관광 GDP의 측정과정에서 국내관광소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종합하면 방문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활동이 관광관련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이 소비에 수반되는 상품을 생산하는 관광산업의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관광위성계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관광공공소비(Tourism collective consumption)

SNA1993에 따르면 비시장재로서 공공서비스(non-market collective services)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나 사회의 특정지역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사용이 대부분 수동적이고 모든 개인과 관련된 참여활동이나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한 개인에게 제공된 정부지출이 동일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공공재(public good)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또는 공공부문)의 역할과 연결된다. 특히 관광공공소비는 공공재(또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자인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관광관련 소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관광개발 환경조성과 같은 정책당국 활동의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기 위하여 관광공공소비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④ 관광고정자본형성(Tourism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관광에서 총고정자본형성은 교통, 숙박, 여가 등과 관련된 기반시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광고정자본형성에 대해서는 다

양한 견해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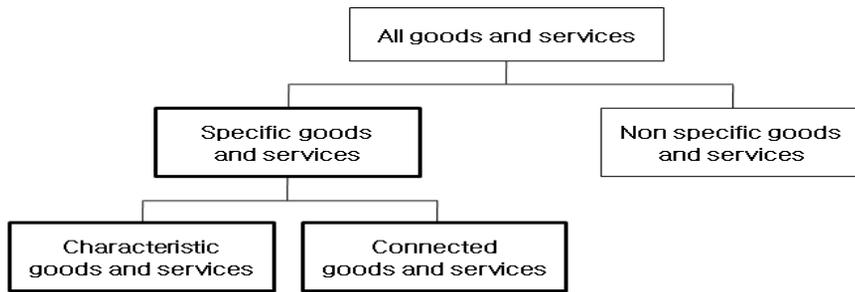
- ① 관광상품을 생산하는 고정자산(Tourism specific produced fixed assets): 관광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구성된 자산
- ② 비관광부문의 유형고정자산 중 관광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 (Investment by the tourism industries in non specific tangible fixed asset): 호텔예약시스템 및 세탁소 등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관광과 관련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 ③ 기반시설(infrastructure):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투자(공항, 도로, 전력, 통신 등)

2) 공급측면의 개념 및 정의

관광의 공급측면에서 필요한 항목들의 개념 및 정의는 주로 관광상품과 관광활동, 그리고 관광산업 등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광상품(Tourism-specific products)

관광소비는 방문객들이 여행 중 또는 관광목적지(destination)에 체재하는 기간 중에 관광객 또는 방문객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총 소비를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관광소비에는 재화와 서비스 소비의 모든 범주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일상 생활권을 벗어나 행하는 소비활동이 관광소비로 규정된 상태에서 개별 소비의 규모나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재화와 서비스가 관광소비의 추정을 위한 적절성을 갖지는 못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계소비(household consumption)에 대한 연구나 설명에 유용한 구조와 분류체계가 관광에 초점을 둘 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인용

(그림 3-3) 관광상품(재화와 서비스)의 구분

이러한 문제는 SNA1993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서는 어떤 행위가 이들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관찰과 품목별 지출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기능지향적 위성계정(functionally oriented satellite account)의 개발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광상품은 '① 관광핵심상품(characteristic goods and services)'과 '② 관광관련상품(connected goods and services)'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 구조는 (그림 3-3)과 같다. 즉, 우리가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 설명하는 관광상품(Tourism specific goods and services)은 결국 관광핵심상품과 관광관련상품을 모두 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광관련 특정 상품들 내에서 오로지 방문객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획득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관광상품에서 관광관련 자본재(capital goods)와 비시장재인 관광공공서비스는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여객운송업과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컨설팅 서비스와 같이 방문객들이 직접 소비하지는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부문과 관광상품을 구분하기도 한다.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문객 소비와 직결된) 관광상품의 리스트는 <표 3-4>와 같다. 이 리스트의 제공목적은 관광의 경제적 분석이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단, 여기서 제공되는 관광상품 리스트는 CPC 분류기준(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Version 1.0)의 4-digit level을 채택하고 있다.

<표 3-4> 관광상품 리스트

구분*	CPC code		
1. 숙박서비스			
1.1 Hotels and other lodging services	63110.0 63194.0	63191.0 63195.0	63192.0 63199.1
1.2 Second homes services on own account or for free	72211.1		
2. 음식료서비스	63210.0 63300.0	63220.0	63290.0
3. 여객운송서비스			
3.1 Interurban railway transport services	64111.1	64111.2	
3.2 Road transport services	64213.0 64221.0	64214.0 64222.0	64219.1 64223.0
3.3 Water transport services	65111.0 95119.3 65219.1 65230.0	65119.1 65130.1 65219.2	65119.2 65211.0 65219.3
3.4 Air transport services of passengers	66110.0 66400.0	66120.1	66120.2
3.5 Supporting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67300.0 67530.1 67690.2	67400.0 67610.0 67710.0	67510.0 67690.1 67790.0
3.6 Passenger transport equipment rental	73111.0 73116.1	73114.1	73115.1
3.7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of passenger transport equipment	87143.0	87149.1	87149.2
4. Travel agency, tour operator and tourist guide services			
4.1 Travel agency services	67811.0		
4.2 Tour operator services	67812.0		
4.3 Tourist information and tourist guide services	67813.0	67820.0	

(표 계속)

구분*	CPC code		
5. 문화서비스			
5.1 Performing arts	96230.0	96310.0	
5.2 Museum and other cultural services	96411.0 96422.0	96412.0	96421.0
6. Recreation and other entertainment services			
6.1 Sports and recreational sports services	96510.0 96520.5	96520.1 96590.1	96520.3
6.2 Other amusement and recreational services	96910.1 96920.1	96910.2	96910.3
7. Miscellaneous tourism services(기타 관광서비스)			
7.1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71100.1 71320.1 71334.2	71100.2 71320.2 71339.1	71311.1 71334.1 71552.0
7.2 Other good rental services	73240.1 73240.4 73290.1	73240.2 73240.5	73240.3 73240.6
7.3 Other tourism services	85970.0 91131.2 96620.2	97230.4 91210.1	91131.1 91210.2

- 하위 리스트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내기준이 체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영문명으로 제시함.

② 관광생산활동(Tourism-specific activities)

UN의 SNA93에서는 위성계정에서 관광산업의 생산자 측면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먼저 생산측면에서 위성계정은 관광관련 생산활동 및 그의 생산자에 대한 분석에 주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여기서 관광핵심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생산활동을 관광생산활동(characteristic activities)이라 하며, 관광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생산자를 관광생산자(characteristic producer)라고 한다.

일단 관광핵심상품(tourism characteristic products)이 정의되면 관광생산활동에 대한 논의는 종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생산활동이란 관광핵심품

목으로 정의되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으로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CPC 기준에 따른 품목구분과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industries, ISIC) 사이의 관계가 일대일로 정확하게 매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ISIC가 산업을 기준으로 하는 분류체계인 반면 CPC는 상품의 품목별 분류기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른 생산과정(서로 다른 ISIC 코드의 산업)을 통해 생산된 품목들이 유사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동일한 CPC 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위성계정 작성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항상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관광핵심상품의 주요 특성은 그것들이 방문객들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제품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해야만 함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서비스 경우에는 생산자(producer)와 판매자(seller)가 일치하므로, 이러한 문제는 제약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유형의 상품, 즉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단계가 개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리하면, 관광핵심상품의 생산활동은 관광핵심상품의 주요 산출물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관광핵심 생산활동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직접적인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관광핵심상품의 결정에 관한 근거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주로 방문객들에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광핵심상품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비되는 상품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행과 같은 소비자에 의해 추구되는 특정 목적에 의해 정의되는 관광소비의 특성 때문에, 한 국가에서 관광핵심 생산활동의 산출물과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먼저 관광핵심 생산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생산자에 의해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공급의 범위와 그리고 이 범주에 포함되는 생산자에 의해서 방문객이 아닌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급의 범위이다. 재화와 서비스 측면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와 생산활

동의 상세성 정도가 이러한 차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다음의 그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TSA가 제공하는 관광공급 부분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음영 처리된 부분들은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분석이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광핵심 산업활동의 산출물과 국내 관광소비의 규모가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관광핵심 생산활동			관광관련 생산활동			관광주변 생산활동			
	주산출물	부가산출물		주산출물	부가산출물		주산출물	부가산출물		
품목별 공급대상	핵심 상품	관련 상품	주변 상품	관련 상품	핵심 상품	주변 상품	주변 상품	핵심 상품	관련 상품	
방문객										국내 관광 소비분석 에 초점
비방문객										
	관광공급분석에 초점									

-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인용.

(그림 3-4) 관광공급과 소비 분석구조

③ 관광산업(Tourism industries)

SNA1993에서는 동종의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그룹들을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한다면, 관광핵심상품의 생산자는 동질적인 생산단위일 것이며, 이는 단일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단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관광핵심 생산활동은 이러한 정의에 입각해서 하나의 독립된 산업부문을 구성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즉, 관광핵심 생산활동은 ISIC 분류체계 상 다양한 산업군들을 포괄하는데, 결과적으로 관광위성계정은 주요 생산활동이 관광핵심 상품을 생산하는 일단의 집단들을 관광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관광핵심 산업군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핵심 생산활동(tourism characteristic activities)과 그에 상응하는 ISIC 분류코드를 정리하면 <표 3-5>와 같다.

<표 3-5> 관광핵심산업 리스트

구분	ISIC code	비고
1. Hotels and similar	5510	
2. Second home ownership	7010	부분적용
3. Restaurants and similar	5520	
4. Railway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6010	부분적용
5. Road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6021, 6120	부분적용
6. Water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6110, 6120	부분적용
7. Air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6210, 6220	부분적용
8. Transport supporting services	6303	부분적용
9. Transport equipment rental	7111, 7112, 7113	부분적용
10. Travel agencies and similar	6304	
11. Cultural services	9232, 9233	
12. Sporting and Other recreational services	9214, 9241, 9219, 9249	부분적용

-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 인용.

④ 부가가치(Value added)

생산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은 부가가치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SNA1993에서는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를 총생산액에서 중간소비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VA_i = X_i - II_i, \quad (3.1)$$

i : 산업부문, VA_i : 총부가가치, X_i : 총생산액, II_i : 중간수요(투입).

그리고 순부가가치(net value added)는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를 제외한 부분으로 정의된다.

$$NVA_i = VA_i - CFC_i, \quad (3.2)$$

NVA_i : 순부가가치, CFC_i : 고정자본소모.

참고적으로 부가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추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순(net) 개념으로 측정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고정자본소모는 생산비용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정자본소모는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며, 고정자본소모와 더 나아가 순부가가치의 값을 추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관광위성계정 작성 권고안에서는 총부가가치 측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of tourism industries)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개별 세부적 관광핵심산업의 부가가치를 합함으로써 측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VAT_t = \sum_{t_i} VA_{t_i}, \quad (3.3)$$

VAT_t : 관광산업 t 의 부가가치,

VA_{t_i} : 관광핵심 세부산업 t_i 의 부가가치.

그리고 이와는 다르게 관광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들의 공급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link)가 결정될 수 있고, 방문객 소비지출(visitor consumption) 수준에 상응하는 부가가치가 추정될 수 있다.

전자의 방법은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이 방문객들을 위해 기여하는 다른 여타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구매과정에서 추구하는 바가 고려되지 않아 특정 산업의 생산액 중 관광관련 부분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 관광산업의 생산 즉, 국내공급(domestic supply)과 국내 관광소비지출(internal tourism consumption), 즉 국내수요 사이의 편차는 교육이나 보건 등과 같이 기능적으로 정의되는 여타 경제적 현상들에 비해 더욱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추계하는 작업은 관광핵심산업들(tourism characteristic industries)의 정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광핵심산업의 범위가 국가마다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관광핵심산업의 범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국가별 상황에 따라 비교가능한 지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가 생산단위의 산출물 중 한 부분의 가치와 연관되기 때문에,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 added)는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에 대응하는 경제 내 관광산업 및 기타 산업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로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관광부가가치는 방문객 또는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모든 산업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율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of tourism industries)와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 added)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개념은 음식점업의 부가가치 전체를 포괄한다. 왜냐하면 음식점업의 생산활동은 이미 관광산

업의 생산활동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관광부가가치의 경우 음식점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관광부가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로지 방문객 대상의 서비스 창출로부터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이 관광부가가치이기 때문이며, 이외 부차적인 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 역시 관광부가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방문객들에 의한 관광소비지출의 한 부분이지만, 관광핵심 생산활동 부문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부차적인 생산활동의 산출과 관계된 부가가치는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 added)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관광부가가치가 관광핵심산업 및 관광핵심상품의 정의와는 독립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관광부가가치 측정에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제기구들에서는 관광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가치측정 기준을 정의하고 그 결과의 국제간 비교 및 발표를 위해 표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CEC, OECD, WTO and UN, 2001).

⑤ 관광 GDP(GDP generated by Internal tourism consumption)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GDP는 모든 생산활동 부문들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¹⁴⁾의 합에 생산물과 수입물에 대한 순 조세(net taxes)를 더한 것이다(식 (2.4) 참조).

$$GDP = \sum_i (VA_i + Ntax_i) , \quad (3.4)$$

$Ntax_i$: 순 조세.

14) 여기서 부가가치들은 기초가격(at basic price)으로 측정됨.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문객들에 의해 창출되는 GDP, 즉 관광 GDP의 측정을 위한 규칙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관광소비와 이러한 소비지출의 가치 내에 포함되는 생산물 및 수입에 부과되는 순 조세(net taxes)의 양에 대응하는 모든 산업부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을 관광 GDP(Tourism GDP)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TGDP = \sum_i (TVA_i + TNTax_i), \quad (3.5)$$

$TGDP$: 관광 GDP, TVA_i : 관광부가가치, $TNTax_i$: 관광 순 조세.

<표 3-6> 공급측면에서 관광의 규모 결정 지표들 사이의 관계

항목	구분		관광산업 부가가치 (VAT_i)	관광 부가가치 (TVA_i)	관광 GDP ($TGDP$)
	생산주체	공급대상			
부가 가치	관광산업	방문객	○	○	○
		비방문객	○	X	X
	비관광산업*	방문객	X	○	○
		비방문객	X	X	X
순 조세(Net taxes)**			X	X	○

- * 원문에는 비관광산업부문의 생산활동(activities not in the tourism industries)로 표시됨(CEC, OECD, WTO and UN(2001)),

** : 국내관광소비액(internal tourism consumption)에 포함된 생산물 및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¹⁵⁾을 의미함.

- 자료: CEC, OECD, WTO and UN(2001).

15) 부가가치와 달리 구매자가격(at purchasers` prices)으로 평가됨.

관광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of tourism industries)와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 added, TVA), 그리고 관광 GDP(Tourism GDP)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란 그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관광객(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이미 관광산업(또는 관광핵심산업)으로 규정된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반면 관광부가가치는 당해 산업이 관광산업으로 규정된 것과는 별개로 개별 산업부문에서 관광객(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관광 GDP는 결국 이러한 관광부가가치의 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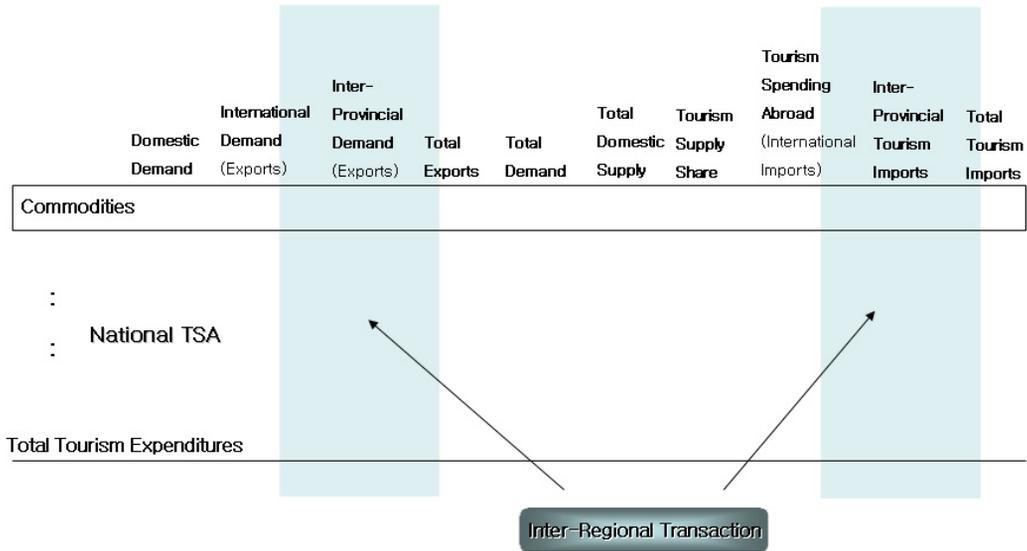
이러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관광부가가치 양 개념을 고용 측면에 적용했을 때, 관광객(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고용규모 즉, 순수한 관광고용(Tourism employment)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에 대해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에서도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관광산업(tourism industries)의 고용의 측정에 대한 문제만을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고로 여기서는 일자리 수(number of jobs)와 피용자 수(employed person)의 두 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 관광고정자본형성(Tourism growth fixed capital formation) 및 관광공공소비(Tourism collective consumption) 등의 측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 있다.

3. 지역 관광위성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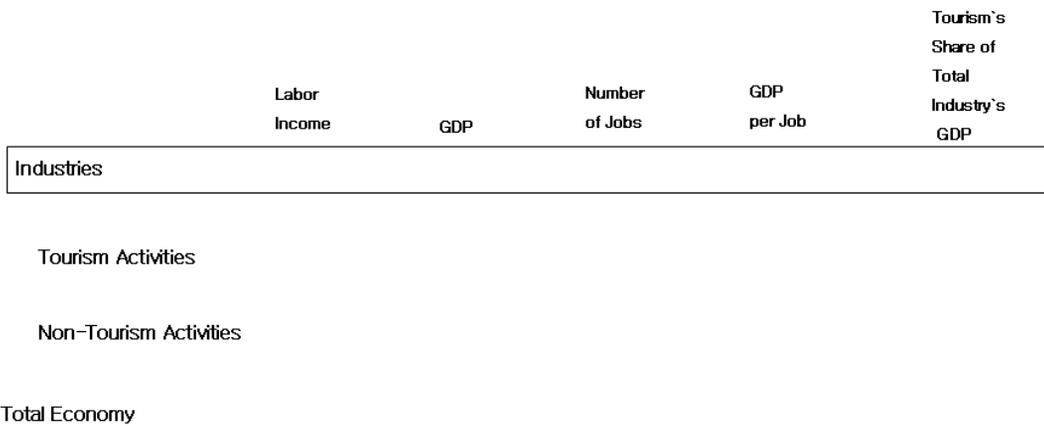
지금까지 설명한 관광위성계정은 국민경제 단위에서의 사례들로서, 한 국가를 중심으로 관광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가단위의 관광위성계정(national TSA)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지역을 단위로 작성되는 지역 관광위성계정(regional TSA)은 국가단위의 관광위성계정에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측면에서 관광객들의 거주지역과 관광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숙박관광(또는 여행)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난다. 즉,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광수요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구분된다. 공급측면에서도 관광상품을 생산하는 관광산업의 생산활동에는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또는 서비스)가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Demand Side)



(Supply Side)



- 자료: Barber-Dueck and Kotsovos(2002) 참조 작업.

(그림 3-5) TSA와 지역 TSA의 관계(캐나다 PTSA의 예)

캐나다의 PTSA에서는 크게 수요측면에서 지역별 관광지출표와 공급측면에서 산업별(관광 및 비관광산업 포함) 부가가치 및 고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PTSA는 지역간 거래로서 Inter-Provincial Demand와 Inter-Provincial Imports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은 지역의 총 관광수출(지역의 해외수출+지역의 수출)과 총관광수입(지역의 해외수입+지역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 캐나다의 PTSA에서는 지역간 거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GDP 및 고용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역간 산업간 연관관계(inter-regional inter-industrial relationship)는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지역 IO에 관련된 논문이나 저서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관광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거래를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관광의 지역간 거래를 구체화하는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의 방법론 및 자료획득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서 이루어진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외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사례와 특히 지역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한 일부 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및 전체를 도출하도록 한다.

제4장 사례분석

계속 언급했던 바와 같이 최근 들어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국제적 지침이 마련되고, 이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이루어져 왔던 각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 사례들을 검토하고, 표준화되어 각국에 권고되고 있는 작성안을 바탕으로 관광위성계정 작성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구체화될 수 있다.

본 단계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방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적으로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는 관광선진국들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설명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결과에 대해 경제 이론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소비지출과 부가가치 간의 관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이 일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OECD(2000)¹⁶⁾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 주요국들의 관광위성계정 작성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특히 지금부터 설명되는 각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 사례는 2000년 이전을 중심으로 설명되며, 여기서는 특히 각국이 OECD에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OECD의 보고서에서는 회원국들이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데이터의 수집, 방법론, 전제 등의 차이점들에 대한 신속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밝히고 있다.

16) OECD(2000), Measuring the Role of Tourism in OECD Economies: The 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s and Employment.

1. OECD(2000)에 보고된 해외 관광위성 작성사례

1) 호주

① 배경

호주에서 관광은 중요 경제활동이며, 호주 내 많은 지역 및 국가적으로 관광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1995년 3월 호주의회는 호주통계국(the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ABS)으로 하여금 호주에서 관광의 중요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였다. 산업과 학자원국(the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 DISR) 및 관광연구소(the Bureau of Tourism Research, BTR)과 협력하여, ABS에서는 1997-98 기간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관광위성계정 작성 방법 및 결과는 2000년 10월에 발표될 예정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② 호주 관광위성계정(ATSA)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호주의 관광위성계정은 고용규모나 방문객 수 등과 같은 기타 관광 지표들과 연관된 관광의 경제적 측면들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관광의 정의 및 개념 방법론 등은 주로 OECD/WTO-OMT의 권고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관광위성계정에서 관광핵심상품(tourism characteristic commodities)과 관련상품은 호주의 경험과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었는데, 특히 수요측면에서 이용가능한 상품소비지출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호주의 관광위성계정(ATSA)는 국민계정체계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균형 공급-사용체계(balanced supply-and-use framework)와 연계된다. 구체적으로 관광상품의 공급과 수요는 상호 독립적으로 추계되며, 이후 자료

또는 방법론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급-사용체계(supply-and-use framework)¹⁷⁾를 활용함으로써, 호주의 총 관광부가가치(TVA)는 그것이 지출측면이든 생산측면이든 또는 소득측면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③ 데이터

관광산업에 관계된 공급측면의 자료는 주로 ABS 조사를 통해 구득되었다. 특히 ABS의 연단위 경제활동 조사(EAS)와 주기적인 산업총조사(SIS)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수요측면의 데이터는 BTR의 조사로부터 구득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단위에서 관광관련 데이터의 질과 양의 수준을 제고 시킴에 따라 향후 지역 단위에서 관광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ABS에서는 지역 단위 추정 및 추계결과를 도출하는데 가능한 기법들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17) SNA1993에서는 산업연관표(IO table)로 공급표(supply table) 및 사용표(use table)와 이를 이용한 대칭적 투입산출표(symmetric IO table)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음(한국은행, 2004).

공급표는 세로방향에는 상품, 가로방향에는 산업을 기록하는 “상품×산업”의 행렬형태임. 가로방향은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를 나타냄(공급구조). 그리고 세로방향은 각 산업이 어떤 상품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공급하는가를 나타내는 산업별 상품생산구조를 나타냄. 사용표 역시 “상품×산업”의 행렬형태로서, 가로방향은 각 상품이 어느 산업의 중간재로 얼마만큼 사용되는지 나타냄(각상품의 산업별 배분구조). 세로방향은 각 산업이 생산과정에 어떤 상품을 얼마나 중간재로 투입하는가를 제시함(산업별 상품투입구조).

2) 오스트리아

① 배경

오스트리아에서 경제·사회·문화·환경 그리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관광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OECD와 여타 국제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통해 관광의 영향력 측정을 개선하려는 방법론적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작업은 보다 진일보한 측정시스템으로서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을 예고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1991년 OECD의 관광경제계정(Tourism Economic Accounts, TEA) 매뉴얼은 관광의 영향력 측정을 위한 국제적 접근방법에 대해 최초로 소개하고 있으며, 경제적 현상으로서 관광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오스트리아와 같이 관광중심의 국가에서 정확한 관광부문의 자료 및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한데, 관광핵심산업 및 관광수요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반으로 5가지 표준화된 관광경제계정 표가 개발되었다. 이후 1990년대, 여러 차례에 걸쳐 측정과 자료구득 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가까운 장래에 관광위성계정이 점차적으로 관광경제계정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¹⁸⁾

관광위성계정 TSA가 경제 내 관광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보다 광범위하고 훌륭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경제계정 TEA 작업이 TSA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통계작업을 확장하는데 기초적이며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트리아의 보고서는 관광경제계정의 영역 내에서 축적된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

18)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2000년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현재는 관광위성계정(TSA)가 관광경제계정(TEA)에 비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임.

② 개념적 프레임워크

오스트리아에서 관광경제계정은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을 위한 시발점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TEA의 결과들은 1985년과 1990년, 1993년 그리고 1996년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1993년과 1996년의 경우, GDP에서 관광핵심산업의 세어가 추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국민계정을 통해 구득되었다. 구체적으로 IO표 및 경제센서스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추계 및 추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OECD의 관광경제계정 매뉴얼에 따라 5개의 기본 TEA 표가 작성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관광 세어를 도출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두 가지 방법론 모두에서 관광산업의 산출물(output)은 관광핵심산업 생산자와 관계된 것으로만 가정하였다. 그리고 2차 산출물 또는 관광과 관계 없는 요소들 모두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결과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③ 결과

1996년 오스트리아의 관광산업 GDP는 99.6십억 ATS에 이르며, 이는 전체 GDP의 4.3%에 이르는 규모이다. 특히 호텔과 음식점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71.1십억 ATS)하며, 다음으로는 여행사를 포함한 여행보조 및 운송산업(9.6십억 ATS)와 육상운송업(8.5십억 ATS) 순으로 나타났다.

3) 덴마크

① 배경

수요측면이 강조되는 관광의 특성 상, 기업들은 관광의 공급측면에 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1996년 덴마크의 관광위원회(the Danish Tourist Board, DTB)는 기업산업국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TØBBE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항구적으로 지역단위에서 관광에 관한 신뢰도 있는 핵심적 경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 프로젝트는 1993 UN/WTO-OMT의 관광에 대한 정의를 기초로 하였다.

② 개념적 프레임워크

덴마크의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유형의 숙박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관광객들의 체재일수 및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행위에 대한 자료를 구득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관광소비지출의 계산과 분해를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는 각 목표 집단별로 지역별 거시경제모형에 통합되었다. 모형의 결과는 정의된 목표 집단과 연계된 결과들과 같이 표준화된 거시경제 변수화되었다.

4) 핀란드

핀란드에서는 핀란드 관광위원회(the Finnish Tourist Board, FTB)의 주도 하에 1998년 관광위성계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핀란드는 주로 다음의 4개 표 작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 표 1: 외국인국내관광소비
- 표 2: 국민국내관광소비
- 표 6: 국내공급과 상품 유형별 국내관광소비
- 표 7: 관광산업의 고용

5) 프랑스

① 배경

프랑스에서는 관광이사회(Direction du tourisme)라는 기구에서 1980년대 중반 이해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접근방법은 1988년 공공당국의 공동포럼 및 관광교역의 대표자들의 관광계정위원회(a Tourism Account Commission)의 창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참고적으로 이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은 이들 계정의 개선과 다양한 이슈들의 검토를 위해 미팅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관광분야에서 핵심적인 필요조건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해 범세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규범은 당시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규범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위해 실제적인 역할을 지속해 왔다.

② 개념적 프레임워크

프랑스의 관광위성계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사항은 국내 거주자 및 비 거주자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 관광소비이다. 여기서 관광소비는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거주 또는 거주를 위한 준비기간 뿐만 아니라 관광(정보, 프로모션 및 행정 등)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체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와 재화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4가지 유형의 관광통계(aggregate)들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 T0: 관광핵심활동과 관계된 소비
(consumption of characteristic tourism activities)
- T1: 방문과 관계된 소비(consumption related to visits)

19) 이는 2000년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T2: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
- T3: 관광 및 관광관련 소비
(tourism and tourism-related consumption)

처음 세 가지 관광통계들에는 적어도 하룻밤이상 12개월 미만 방문한 특정한 국가에서 체류하는 방문객들로 정의된 국제관광객의 개념이 적용되는 관광소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은 위성계정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지는데, 문제는 주로 관광공급이 중앙상품분류체계(central product nomenclature)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일부 품목들의 경우 관광객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으로 충분히 잘 정의되는 반면, 다른 특정 상품들의 경우 관광객들에 의해 이용되는 정도가 서로 상이할 수 있다.

이에 프랑스의 관광위성계정에서는 관광핵심부문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리스트 및 자본스톡과 관련 플로우(flow), 그리고 이들 산업부문들의 고용 추계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핵심부문의 개념은 여전히 국제적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태이다.

6)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국립경제연구원(the National Economic Institute, NEI)은 가장 최근 버전의 국민계정체계인 SNA1993 및 유럽표준계정체계1995(the harmonised European System of Accounts 1995, ESA1995)의 이행과정에 있다. 또한 NEI에서는 새로운 산업분류체계 NACE Rev.1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 Rev.3)에 근거하고 있다. 이 외에도 NEI에서는 당분간 공급-사용표(supply-and-use table)와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입산출표를 구축하게 되었다.

개정된 국민계정체계에 근거하여, 아이슬란드에서는 관광 영역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경제관련 데이터에 관하여 선형적인 관광위성계정(pilot TSA)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OECD의 관광위성계정 매뉴얼(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 및 WTO-OMT의 관광위성계정: 방법론적 참고사항(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Reference) 과 Eurostat의 권고안 등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NEI에서는 OECD와 WTO-OMT, 그리고 Eurostat 등에 의해 마련된 권고안 및 정의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7) 멕시코

① 배경

멕시코에서는 1998년 국민계정체계의 확장으로서 관광위성계정(MTSA)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MTSA는 멕시코의 관광부(the Ministry of Tourism) 즉, SECTURE와 국립통계·지리정보 연구원(INEGI) 사이의 협력과 협조를 통해 작성되었는데, 이의 작성은 적어도 다음의 6가지 항목에 부합되는 광범위한 거시경제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 관광과 기타 산업부문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포함한 국민경제에 대한 관광의 실질적 기여도
- 관광지표로서 다양한 수준의 관광통계 개발
- 진보되고 시의적절한 프로그래밍 수단의 개발
- 관광 트렌드와 구조 분석 촉진
- 국민경제 내에서 기록되는 관광관련 화폐흐름 설명
- 관광분야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베이스 확대

② 주요 결과

MTSA에 의해 도출된 결과는 멕시코 정부에 의해 조성된 관광산업에 대한 이전의 추정결과를 초과하였으며, 개발사업을 위한 관광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SECTURE는 멕시코 경제에서 관광의 실제적 영향을 측정해 왔으며, 1999년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결과가 제시되었다.

- 관광산업은 멕시코 경제 내 재화와 서비스의 총 공급 중 6.5% 설명
- 관광은 전체 GDP에 대해 8.2%(30십억 USD) 기여

③ 개념적 프레임워크

멕시코의 관광위성계정은 최초 1993년을 기준년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WTO-OMT의 1996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Reference 및 SNA1993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8) 뉴질랜드

① 배경

뉴질랜드 통계청은 1999년 6월 최초로 1995년 기준 관광위성계정(TSA95)를 개발, 발표하였다. 뉴질랜드의 TSA95는 다양한 정부기관과 관광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자문활동은 관광위성계정 주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기에 의도되었던 결과물에 변화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GDP에 대한 관광의 간접적인 기여도(또는 유발효과)에 대한 이용자 집단의 관심이 상당했으며, 이는 결국 이 사업의 범주 내에 추가되었다.

또한 국제간 비교가능성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TSA95가 주로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OECD의 매뉴얼에 기초하게끔 강제하였다.

② 주요 결과

뉴질랜드의 TSA95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광은 1995년 기준으로 GDP의 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5.6%), 건설(3.5%) 그리고 통신(3%) 등과 같이 전통적으로 분류되어온 산업들의 기여도에 비견되는 수치이다. 만일 간접적(유발)효과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관광에 의해 창출되는 효과는 GDP의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에서 관광객들에 의해 발생된 총 소비지출은 1995년 9.1십억 NZD로, 이 가운데 47%가 외국인 방문객들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외 39%는 뉴질랜드 국민들의 여가와 위락활동을 통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14%가 기업과 공공부문과 관계된 지출이다. 특히 뉴질랜드 전체 고용규모의 4.1%가 관광객들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4.2%가 관광을 지원하는 업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③ 개념적 프레임워크

뉴질랜드의 TSA95는 1998년 출간된 OECD와 WTO-OMT에 의해 제시된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개발되었으나, 이후로 이들 프레임워크의 변화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이는 차기 뉴질랜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에 있어서 최신의 공식적인 OECD 매뉴얼을 기초로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TSA95는 일부 측면에서 특별한 또는 상이한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장래의 TSA를 위해 이후의 기준에 입각한 재검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9) 노르웨이

① 배경

국민계정의 표준분류체계 및 표준화된 개념 내에서 쉽게 파악하기 곤란한 일부 경제적 거래가 존재하며, 특히 관광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노르웨이에서 관광위성계정은 국민계정을 기초로 한 계정이며, 관광과 관련된 거래를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고안된 것이다.

노르웨이 통계청(Statistics Norway) 내 국민계정 담당부서가 노르웨이의 관광위성계정(NTSA) 작성을 담당하였는데, NTSA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의 모든 해에 대해 작성되었으나, 1997년과 1998년의 경우는 잠정적인 결과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교역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NTSA의 작성과 업데이트를 위한 작업의 재정지원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1996년 노르웨이 통계청은 SNA1993과 ESA95라는 새로운 국제적 권고안을 기초로 국민계정의 개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이에 따라 NTSA는 SNA1993과 ESA95에 부합하는 국민계정체계를 기초로 하게 되었다. 특히 NTSA의 공급-사용표는 국민계정의 공급-사용표 내에 통합되며, 관광목적 및 관광상품 별로 관광소비지출에 대한 통계치를 제공하게 되었다. NTSA는 관광통계와 관련된 현재의 국제적 기준에 입각하고 있다.

② 주요 결과

1993-1995년 사이 노르웨이 GDP 중 관광의 기여도(관광 GDP)는 대략적으로 3% 정도이며, 총 고용에 대한 관광의 기여도 역시 같은 기간 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1995년 노르웨이의 총 관광소비지출의 약 32%는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발생된 것이며, 총 관광소비의 49%는 노르웨이 거주객들의 관광관련 가계소비지출로부터 발생하였고, 나머지 19%는 기업들의 상용여행에 관계된 소비지출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③ 노르웨이 관광분석에서 IO

노르웨이의 관광공급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에서 관광핵심산업의 총 산출액 중 상당 부분이 비 관광객(방문객)을 대상으로 판매된 것이다. 반대로 방문객들은 관광핵심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들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관광수요와 관광공급 사이에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광공급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각 연도별 NTSA의 공급-사용표를 NTSA의 산업×산업 행렬(industry-by-industry matrix)로 전환하였다. 이 행렬은 관광공급과 관광수요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산업들간 그리고 산업과 최종소비지출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제시한다. 이외 GDP 및 고용에 대한 관광소비지출의 기여도는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될 수 있다.

IO 모형은 서로 다른 유형의 산업들에 의해 발생하는 관광소비지출과 총 산출 중 관광의 세어를 제시하게 되는데, 1993년 NTSA의 산업×산업 행렬은 관광수요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었다.

10) 폴란드

① 배경

1980년대 말 이후 폴란드 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정치적 변화는 관광산업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당시 1990년대 10년간²⁰⁾ 수많은 관광객들이 폴란드를 방문하였으며, 폴란드 국민들의 해외여행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은 소득과 고용창출의 잠재력이 큰 원천으로 그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기존의 지표들로는 관광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20) 1990년대를 의미함.

이 때, 폴란드의 중앙통계사무소(the Central Statistical Office, CSO)에서는 1993년에 채택된 신 국민계정체계의 이행에 진전을 보이게 되었는데, SNA1993은 중앙 시스템 내에서 적절하게 측정될 수 없었던 사항들을 측정하기 위한 위성계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관광과 보건·위생, 교육, 환경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및 방법론 등의 검토를 위한 관광위성계정에 관한 세미나가 1996년 개최되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OECD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폴란드 관계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폴란드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은 PHARE 기금과 CSO 및 체육관광부(the State Sport and Tourism Administration)의 출판물 판매수익 등을 통해 을 통해 재원조달이 이루어졌다.

② 개념적 프레임워크

폴란드의 관광위성계정(PTSA)는 주로 1991년 OECD의 관광경제계정(the 1991 OECD Manual on Tourism Economic Accounts) 매뉴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PTSA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 표 1: 관광핵심상품의 사용-공급 계정
- 표 2: 관광핵심 생산활동과 수입창출 계정
- 표 3: 관광소비지출
- 표 4: 관광핵심 산업활동의 고용

폴란드의 PTSA는 국민계정에 채택된 NACE와 SPA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관광관련 개념과 정의는 WTO-OMT와 OECD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수요의 정의와 방문객 및 관광소비지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③ 주요결과

1995년 기준으로 폴란드 총 소비지출의 2.2%가 관광수요에 의한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이 이 중 3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당일관광객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관광소비지출 중 내국인들의 상용관광이 35%를 차지하며, 가계부문의 관광소비지출이 28%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 외 공급측면에서 관광핵심 산업활동이 국민경제 총생산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11) 스페인

스페인의 관광위성계정(STSA)의 작성은 관광연구원(the Instituto de Estudios Turisticos, IET)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으로 IET에서는 두 가지 조사를 담당해 왔다. 첫 번째는 지역단위를 포함하여 자국민들의 관광활동 관련 관광이동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경을 넘어서 관광이동, 특히 스페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방문객들의 활동을 조사하는 것이다.

관광이 스페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작업을 IET가 진행하도록 강제한 몇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스페인에서 관광의 경제적 중요도가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WTO-OMT, OECD, Eurostat 등 관광관련 주요 국제기구들에 의해 관광위성계정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개발되었는데, 구체적으로 ESA1995에 근거한 국민계정체계가 1999년 최초 발표되었다. 이에 1999년 초 스페인의 국립통계연구원(INE²¹)과 스페인은행, 그리고 IET에서는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작업그룹을 조직하였으며, 2000년 말 스페인의 관광위성계정(STSA)을 발표하였다. 즉, ESA1995를 기반으로 한 신 국민계정체계는 스페인의 TSA 개발을 위한 참고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다.

21) The National Statistic Institute.

12) 스웨덴

① 배경

관광위성계정을 생산하기 위한 스웨덴의 작업은 1995년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스웨덴 내 관광통계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당국은 관광이 스웨덴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그동안 호텔과 음식점, 교통서비스 등 전통적 지표의 혼합은 관광산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왔는데, 이에 따라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에서는 국가단위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이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스웨덴 통계청의 국민계정 담당부서로부터 2인의 전담조직이 결성되었으며, 1990-1994 기간 동안의 관광위성계정과 관련된 작업이 1996년 이루어졌으나, 이 프로젝트는 파일럿 스타디로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실현가능성 등이 검토되었다. 그리고 이후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 이르러서야 방법론과 이용자료에 대한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WTO-OMT와 OECD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었다.

② 주요결과

스웨덴의 관광위성계정 작성 경로가, 1996년 기준으로 스웨덴 GDP의 3.3%가 관광산업에 의해 창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음식숙박업이 관광산업 부가가치의 주된 생산자료, 이 산업이 총 관광부가가치 생산의 23%를 담당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외 second home(17%)과 항공운송서비스(16%), 소매업(12%) 등의 순으로 관광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방법론

주로 생산은 수요측면을 통해 추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숙박과 여객항공 운송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상품들의 경우, 그들의 모든 생산이 관광소비지 출로서 취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급의 일부분만이 관광객들의 소비지출로부터 발생된 것이다. 일단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관광수요가 추정된 후, 그의 생산은 국민계정 내에서 한 산업의 전형적 산출물과 개별 생산그룹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 계산하였다.

이후 관광수요의 수준은 다시 (방정식 내) 그 산업의 총산출 수준에 대해 비교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관광 세어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가가치 세어는 생산-가치(the production-value) 세어와 동일함이 전제되며, 이로부터 각 개별산업의 관광부가가치의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의 GDP 세어는 개별 산업들의 합으로부터 추산되며, 고용의 경우 역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계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모형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한 것으로서, 모든 산출물이 관광 핵심산업에서 생산되며 이차적인 산출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13) 기타: 문관부·문화관광연구원(2005)의 해외사례

이외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 각국들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사례를 종합한 내용은 <표 5-1>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각국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캐나다나 노르웨이 등 일부 선도적 국가들의 경험과 국제기구들의 공통된 노력을 통해 관광위성계정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 및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OECD나 WTO-OMT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표 4-1> 세계 각국의 관광위성계정 개발사례 종합

구분	개발주체	개발시점 및 경과	개발방법	비고
캐나다	Statistics Canada	1991년 최초 발표 1996년 이후 매 2년 단위 Upgrade 발표	- 관광수요, 공급 조사 - IO 이용	세계 최초 지역관광위성계정(PTSA**) 개발 발표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1998년 최초발표 (92년 기준 계정) 2000년, 2004년 Upgrade 발표	- OECD/WTO 권고안 입각 개발 - IO 이용	
영국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s	2003년 이후 지속 Upgrade	- 수요측면 접근법 - 공급측면 접근법 - OECD/WTO 권고안 입각 개발	공급측면 추계 어려움 언급
호주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0년 최초 발표 이후 지속적 Upgrade	- IO 표 바탕 - 관광소비지출 및 국민계정자료 활용 개발	
뉴질랜드	Statistics New Zealand	1995년 최초 발표 이후 지속적 Upgrade	- 전적으로 2차자료 이용 개발 (1995년 표의 경우) - OECD/WTO 등의 권고안에 입각 개발	
필리핀	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 Department of Tourism	1999년	IO 및 각종 통계자료 활용	

- *: 표에 제시된 국가들 외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많은 국가에서도 관광위성계정을 개발하여 OECD에 보고함(앞의 내용 참조).

** :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SA.

자료: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OECD(<http://www.oecd.org>) 등.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관광위성계정 개발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입이 요구되나, 일단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 지속적인 계정생산이 가능하다. 물론 관광위성계정의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위해 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나, 최초개발 시에 비해 그 부담은 크게 감소된다. 이를 통

해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광통계 및 관광관련 경제현상의 규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관련자료 조사 및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 등 기존 국민계정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광위성계정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관광산업 및 관광상품은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 및 상품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민계정 내에서 산업활동을 위한 중간재 및 생산요소(노동과 자본, 토지 등)의 투입관계와 배분관계를 다양한 업종별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산업연관표가 유일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된 관광위성계정 개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국가마다 추계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 결과의 국가간 비교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다.

2.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2006년을 기준으로, 현재 캐나다와 스페인,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에서 지역단위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완료했거나 시도 중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지역관광위성계정(PTSA)의 작성과정 및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arber-Dueck and Kotsovos, 2002) 이외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시도 중인 국가들의 연구결과는 제한적으로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스페인과 핀란드 등의 경우 2006년 현재, 국제기구들에서 주관하고 있는 관광통계에 관한 국제포럼에 일부 관련자료만 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캐나다의 PTSA 작성과정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며, 이의 내용은 주로 Barber-Dueck and Kotsovos(2002)에 따른다.

1) 캐나다 PTSA 작성 배경

1994년 캐나다 통계청에서는 국민경제 차원의 관광위성계정을 작성·발표하였는데, 이 작업은 관광위성계정 개발을 권고한 국가 단위의 관광 T/F(National Task Force)에 의해 촉구된 것이다. 이 T/F는 연방정부와 주 및 지방정부와 함께 관광관련 기구 및 산업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관광과 중요한 연관성을 갖는 상품 및 산업의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초기 작업을 바탕으로 캐나다 통계청(SC)은 자국의 관광위성계정 CTSA를 업데이트 시키는 작업 외에 국가단위의 관광지표를 분기별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즉, 캐나다는 경제적인 관광통계의 개발에 있어 범세계적으로 선도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적으로 세계관광기구 WTO에 의하면, 약 12개국 정도가 국가단위의 관광위성계정을 개발하였으며, 약 25개국들에서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관광위성계정의 유용성에 기반하여 이의 범세계적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0년 3월, UN의 통계위원회(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s)에서는 관광위성계정 작성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OECD, Eurostat, WTO 등의 국제기구 및 수많은 통계당국들이 오랜 기간 동안 폭넓게 작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관심은 주로 국가 단위의 계정에 집중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한편으로는 지역단위 관광계정의 작성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지역 단위 계정(regional accounts)의 개발을 이룩하였으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더 하위의 소지역 단위(county level)에서 관광위성계정을 작성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나다의 지역 관광위성계정 PTSA가 개발되기 전, 캐나다 관광위원회(the Canadian Tourism Commission)와 퀘벡주는 다른 지역의 관광부서들과 협력하여 지역단위 관광위성계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계정이 적절하게 추계될 필요가 있으며, 기준년

도는 1996년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1996년을 기준년도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SNA1993에 입각하여 주나 지방정부 단위에서 이용가능한 지역 IO가 1996년을 기준으로 하며, 1996년 데이터의 경우 북미산업분류체계(the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NSICS)보다는 표준산업분류체계(SIC)에 기반을 둔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를 통해 SIC를 활용한 국가 단위의 1992년(및 1988년) 기준 관광위성계정과 1996년 기준 관광위성계정의 비교분석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관광수요 뿐만 아니라 산업별 고용 등에 관한 자료 역시 1996년의 경우가 이용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함이 지적되었다.

2) 기본개념

캐나다의 PTSA의 작성은 기본적으로 국민계정체계의 회계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제적 생산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통계의 종합적 프레임워크이다.

참고적으로 국민계정은 경제의 구조와 개별 산업의 기여도를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국민계정은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과 집단들에 의한 생산물의 처분과 소득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사용 그리고 그 중요도의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PTSA와 같은 위성계정은 국민계정과 동일한 구조와 원칙을 견지하나 국민계정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때문에 “위성(satellite)”이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위성계정은 핵심계정(또는 주계정) 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그래서 별도의 계측과정이 필요한 부분에 주 관심을 두며, 이에 따라 위성계정은 관광과 교통 또는 환경 등과 같은 분야에 특화된다.

그러나 국민계정 원칙의 준수를 통해 위성계정은 SNA를 통해 측정되는 경제 전반의 내용과 비교 가능하다. 그리고 관광위성계정 작업에 있어서 SNA 내 IO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IO표는 다양한 산업부문 상

품의 생산자와 구매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 내 생산적 활동의 측정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IO는 산업별 총산출 수준과 상품의 활용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핵심비용(또는 투입요소)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이 SNA 내에서 규명가능한 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관광은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라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구매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PTSA의 작성을 위해서는 개별산업들은 관광부문과 비관광부문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각 개별 관광부문의 부가가치를 통합함으로써, 관광 GDP는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3) PTSA 작성방법

캐나다 PTSA의 작성목적은 관광 GDP와 고용, 그의 공급과 수요 등을 포함하는 관광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TSA는 관광조사를 통해 수요측면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GDP 및 고용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한다.

그러나 다른 데이터들이 주로 산업을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는 반면 관광관련 데이터는 주로 상품 단위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GDP와 고용이 주로 산업단위로 분해가 가능한 반면, 수요 데이터는 상품단위로 세분 가능한 상태이다. 즉, GDP와 고용이 산업단위 분석이 이루어지는 반면, 관광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수요 데이터는 상품 품목별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과 산업간의 연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수요/공급 비(demand/supply ratio)가 개별 상품별로 계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 상품별로 도출되는 수요/공급 비(ratio)는 산업에서도 적용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관광 GDP와 고용 등이 수요측면의 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추계될 수 있다.

(1) 공급측면

공급측면 계산의 시작점은 투입산출(IO) 시스템이며, 이는 경제 내 모든 산업의 계정들과 그들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PTSA 작업의 첫 번째 단계는 방문객들에게 관광상품을 공급하는 산업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이다.

그러나 발표된 IO 체계 내의 산업구분은 PTSA 작업을 위해 충분히 세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IO에서는 음식료 전체 산업에 대한 통계치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료업 중 보다 세밀하게 구분된 산업 중에는 PTSA에 포함될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이 구분될 수 있다. 만일 세부산업별로 관광의 세부산업 및 관광상품이 구분된 후 공급세어(supply share)는 계산된다. 공급 세어는 한 산업 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총산출량에서 세부산업(sub industry)의 몫이 된다. 예를 들어 두 세부산업이 모산업의 공급을 절반씩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세부산업들에 대한 이들 상품들의 공급 세어는 50%가 된다. 이 공급 세어는 이후 산업별 수요를 할당하는데 활용된다.

(2) 수요측면

PTSA에서 관광수요의 계산은 내국인들의 국내관광을 대상으로 한 CTS(the Canadian Travel Survey)와 국제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ITS((the International Travel Survey)의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 첫 번째 단계는 씨베이로부터 획득된 상품세목을 수요/공급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IO 체계 내에서 이용되는 세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일부 품목의 경우 IO 체계 내의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관광수요가 공급측면과 동일한 상품분류체계를 통해 계산이 된다면, 관광세부산업에 대한 수요를 할당하는데 공급 세어가 이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일 세부 산업에 의해 50%가 공급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관광세

부산업은 50%의 수요를 할당받게 된다.

산업별로 수요측면의 데이터가 분배된 후에는 수요/공급비가 개별 산업단위에서 계산된다. 수요/공급비는 단순히 개별 산업의 총 관광수요를 그의 총 관광공급으로 나뉜 값이다. 이 비는 개별 산업의 산출이 관광활동에 기여하는 정도를 알려준다.

그러므로 특정 산업의 수요/공급 비가 40%라고 한다면, 그 산업의 총산출 중 40%가 관광으로부터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공급 비는 나중에 관광 GDP와 고용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참고적으로 관광공급은 관광수요에 비해 큰데, 이는 주로 관광공급이 관광에 기여하는 비율만이 아닌 관광 산업의 총공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분석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수요는 지역내 거주자수요(domestic demand)와 CTS와 ITS 자료를 활용한 지역별 비거주자 수요(non-resident demand), 즉 수출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수출은 지역간 국가간 관광수출로 구분하며, 자료 역시 지역간 국가간의 구분이 이루어진다. 수출과 수입 양 측면 자료의 이용가능성은 각 주 및 지역의 관광수지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3) GDP

관광 GDP 및 그의 구성요소, 노동소득, 기타 영업잉여 등은 IO 체계로부터 획득된다. 그리고 산업별 수요/공급 비는 관광 GDP의 계산을 위해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특정 산업의 수요/공급 비가 50%라면, 그 산업 GDP의 절반 정도가 관광에 할당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관광 노동소득, 영업잉여 등 관광과 관련된 부가가치 세부항목의 측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기타 산업(other industries)”의 GDP를 계산하는 과정에는 특별한 산정과정이 적용된다. 소매업과 같은 기타산업은 비관광 산업 또는 관광산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들 산업에서도 관광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을 도출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이들 산업들에서도 관광

객들에 의해 구매되는 상품들이 생산된다. IO의 민간소비지출 자료가 이들 품목들의 가치를 배분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4) 고용

GDP의 경우와 같이 고용은 산업단위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 측면에서 개별 산업의 관광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GDP와 같이 동일한 산업 비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산업의 수요/공급 비가 50%인 경우, 이 산업 고용의 절반이 관광을 위해 할당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계산방법은 모든 관광 관련산업에 대해 적용되며, 주 또는 지역 단위 전체 관광고용 규모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의 합산 작업이 필요하다.

(5) PTSA의 결과물

캐나다 PTSA의 결과물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표로 구분된다.

- 표 1: 관광수지표(Tourism Trade Balance)
- 표 2: 상품 유형별 관광소비지출표
(Tourism Expenditure by Commodity)
- 표 3: 관광산업 및 비관광산업의 GDP 및 고용표(GDP and Employment for Tourism and Non-Tourism Industries)

각 표는 캐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 및 지역 단위로 제시되며, 각 지역표의 합이 곧 캐나다 전체의 관광위성계정을 형성하게 된다(그림 5-1 참조). 관광지출표와 GDP 및 고용표는 결국 각 지역별로 제시되어야 하며, 국가 단위에서 이를 종합하는 표가 추가된다. 따라서 지역의 개수가 n 개인 경우 표 2와 표 3은 각각 총 $n+1$ 개의 표로 구성된다.

우리가 캐나다의 PTSA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간 관광거래, 즉 지역간

수출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PTSA에서는 관광소비지출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Interprovincial Demand(Exports)와 Interprovincial Tourism Imports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간 관광거래를 규명하고 있다.

Tourism Trade Balance (in millions of dollars)			
Province/Territory	Total Tourism Trade Balance	Inter-Provincial Tourism Trade Balance	International Tourism Trade Balance
P/T #1 ⋮ P/T #n			
Canada			

Tourism Expenditure by Commodity(P/T # i)										
	Domestic Demand (1)	International Demand (Exports) (2)	Inter- Provinci- al Demand (Exports) (3)	Total Exports (4)=(2) +(3)	Total Demand (5)=(1)+(4)	Total Domestic Supply (6)	Tourism Supply Share (7)=(5)/(6)	Tourism Spending Abroad (international Imports) (8)	Interprovinci- al Tourism Imports (9)	Total tourism Imports (10)=(8)+(9)
Commodities	(millions of dollars)									
Tourism Commodities										
Total Other Commodities Purchased by Tourists										
Total Tourism Expenditures										

(그림 계속)

GDP and Employment for Tourism and Non-Tourism Industries(P/T # <i>i</i>)					
	Labor Income	GDP	Number of Jobs	GDP per Jobs	Tourism's Share of Total Industry's GDP
Industry	(millions of dollars)		(000)	(dollars	(%)
Tourism Activities					
Non-Tourism Activities					
Total Economy					

- 자료: Barber-Dueck and Kotsovos(2002).

(그림 4-1) 캐나다 PTSA의 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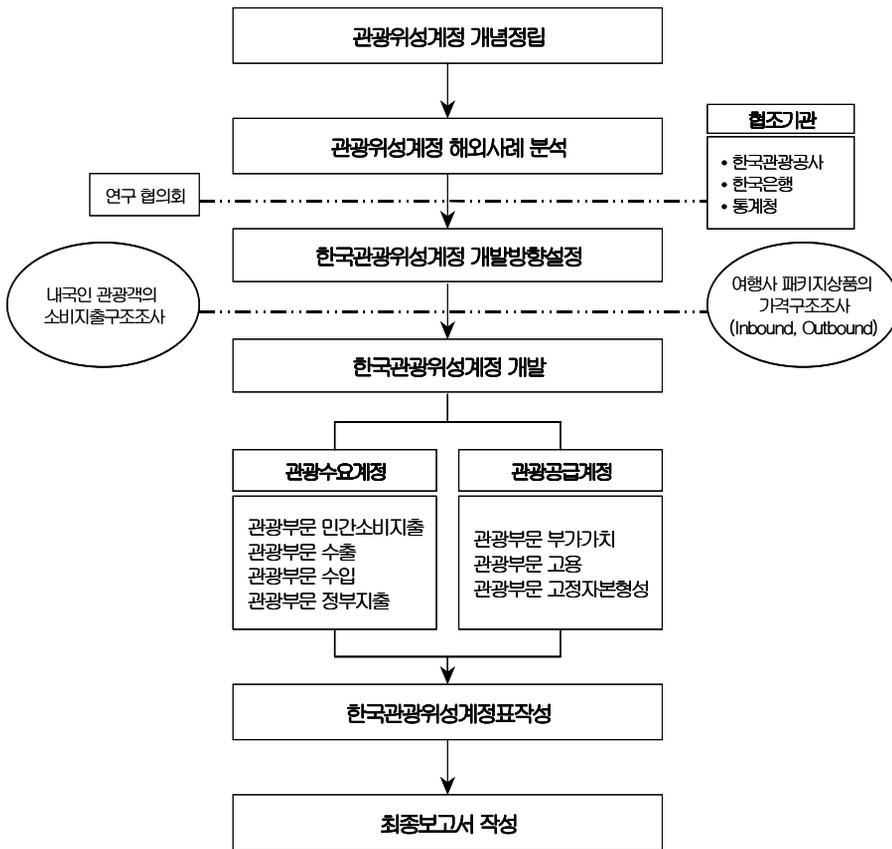
3. 우리나라 관광위성계정

캐나다의 PTSA에 대한 설명에서와 같이 지역별 관광위성계정의 수평적 합은 결국 국가 단위 관광위성계정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은 우리나라의 관광위성계정 KTSA의 결과와 합치해야만 한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는 2000년 최초로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 주도로 1998년 기준 관광위성계정(KTSA)을 작성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후 2005년에 다시 2004년 기준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KTSA의 작성과정에 적용된 방법론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의 내용을 요약 설명한다.

1) KTSA의 작성과정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는 주로 WTO의 관광위성 작성 지침에 입각 우리나라의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였는데, 이의 작성과정은 (그림 4-2)에 요약된 바와 같다.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그림 4-2) 한국 관광위성계정 작성 절차

2004년 기준 한국관광위성계정은 수요측면에서 관광산업을 파악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관광산업의 공급측면을 분석하는 방법이 이

용되었다.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관광위성계정 분석은 (그림 4-3)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관광지출과 관련된 기존의 통계자료(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관광공사, 일반여행협회 등)를 활용하여 관광목적의 민간소비지출, 수출, 수입의 규모를 파악하였다. 여기서는 기존의 통계자료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목적의 민간소비지출, 수출, 수입의 세부항목별 지출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광목적의 정부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였다.

수요측면	1단계	전체 민간소비지출 중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파악
	2단계	전체 수출·입 중 관광부문 수출·입 파악
	3단계	정부지출 중 관광부문 정부지출 파악
	4단계	1, 2, 3단계를 종합하여 관광수요계정 추계
공급측면	5단계	관광수요계정을 바탕으로 관광부문 부가가치 추계
	6단계	관광수요계정을 바탕으로 관광부문 고정자본형성 및 고용 추계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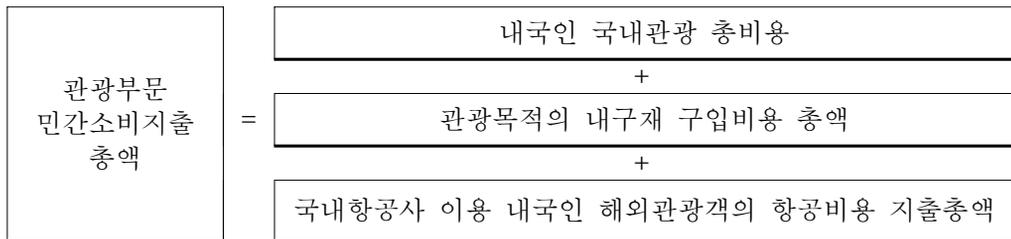
(그림 4-3) 수요 및 공급측면 추계과정

다음으로 관광수요계정의 작성결과를 토대로 산업연관분석을 통하여 공급측면에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고용, 고정자본형성을 간접적으로 추계하였다. 수요 공급 양 측면의 구체적 추계과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수요측면

(1)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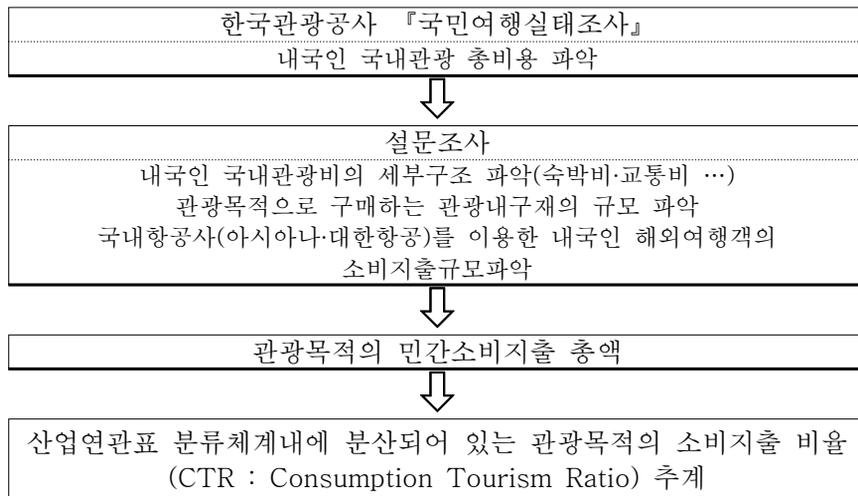
내국인들의 관광소비지출 총액은 (그림 4-4)와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그림 4-4)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총액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2005)에서 관광목적의 민간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 4-5)와 같다.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그림 4-5)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추계방법

한국관광위성계정의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여행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가구소비실태조사’(통계청), ‘도시가계조사’(통계청) 등 기존자료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기존자료의 한계점을 보완, 즉 내국인 국내관광비용의 구성비율을 파악하고, 관광 전·후에 이루어지는 관광내구재(카메라, 텐트 등)의 소비지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내국인 해외관광포함)하였다. 또한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에 포함되는 국내항공사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항공비용 지출액을 파악하고자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연관표(404부문 기준) 내의 각산업에 분포된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즉 산업연관표 분류체계 내의 각산업의 민간소비지출 중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CTR(Consumption Tourism Ratio)를 추계하였다.

$$\text{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비율(CTR)} = \text{관광목적의 민간소비지출} / \text{민간소비지출}$$

한국관광공사의 자료 및 써베이 결과를 통해 정리된 내국인들의 국내여행 지출 비용 구조는 <표 4-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4-2> 내국인 국내관광 지출비용 세부구조(2004년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국내여행총비용(1,091명*)		국내숙박여행비용(575명*)		국내당일여행비용(516명*)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지출액	124.9	100.00	196.8	100.00	44.7	100.00
여행사지불경비총액	13.7	10.94	21.7	11.01	4.8	10.62
숙박비총액	14.7	11.79	27.9	14.19	0.0	0.00
식음료비총액	33.0	26.45	49.4	25.10	14.8	33.07
일반음식점이용료	24.1	19.30	35.3	17.92	11.7	26.05
주점이용료	6.7	5.38	11.3	5.73	1.6	3.66
다과점이용료	2.2	1.77	2.8	1.44	1.5	3.36
교통비총액	32.5	25.99	50.1	25.44	12.8	28.67
철도여객운송	2.2	1.78	3.3	1.68	1.0	2.28
항공운송	8.3	6.66	15.8	8.02	0.0	0.00
수상운송	0.8	0.67	1.3	0.66	0.3	0.75
일반도로운송	3.4	2.71	4.8	2.43	1.8	4.05
렌터카자가용연료비	13.0	10.39	17.2	8.76	8.2	18.41
렌터카자가용통행비	1.8	1.47	2.6	1.31	1.0	2.25
렌터카자가용주차비	0.6	0.47	0.9	0.45	0.3	0.56
렌터카자가용임대료	2.3	1.83	4.2	2.13	0.2	0.37
기타	0.0	0.00	0.0	0.00	0.0	0.00
기타활동비총액	10.4	8.31	15.4	7.8	4.8	10.7
문화서비스비	3.1	2.49	4.6	2.32	1.5	3.28
영화관람	0.1	0.08	0.2	0.09	0.0	0.00
연극·음악·기타예술	0.1	0.06	0.1	0.07	0.0	0.00
운동경기관람서비스	2.2	1.78	3.7	1.86	0.6	1.35
기타오락서비스비	4.5	3.62	6.4	3.27	2.4	5.34
기타	0.4	0.28	0.4	0.18	0.4	0.78
쇼핑비총액	20.4	16.33	32.0	16.26	7.5	16.65
농림수산물	9.0	7.23	13.1	6.65	4.5	10.10
음식료품	4.9	3.92	7.6	3.85	1.9	4.28
섬유,가죽제품	2.9	2.34	5.4	2.77	0.1	0.22
전자제품	0.8	0.60	1.3	0.68	0.1	0.22
기타 제조업제품	1.9	1.55	3.0	1.50	0.8	1.78
의약품,화장품	0.8	0.68	1.6	0.81	0.0	0.04
기타	0.0	0.01	0.0	0.01	0.0	0.00
기타비용총액	0.2	0.20	0.4	0.19	0.1	0.22
기타비용	0.2	0.20	0.4	0.19	0.1	0.22

*: 표본 수.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관광 전·후 이루어지는 내구재 지출비용 중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이 카메라 구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54.1천원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 피복 및 신발 구입에 평균 34.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비디오카메라 6.2천원, 배낭 및 여행가방 4.8천원, 텐트 2.1천원, 연간이용권 1.8천원 등이 관광목적으로 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관광 내구재 구입품목 및 지출비용

구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텐트	피복 및 신발	배낭 및 여행가방	회원권	연간 이용권	기타	전체
금액 (천원)	54.1	6.2	2.1	34.0	4.8	0.0	1.8	0.3	103.2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국내항공사(아시아나·대한항공)를 이용하여 출국하는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항공비용 지출액을 파악하고자 국내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항공사 내국인 국제선 판매금액은 26,593,000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 국내항공사 내국인 국제선 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전체	내국인
대한항공	30,339,000	17,415,000
아시아나	15,527,000	9,178,000
전체	45,866,000	26,593,000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특히 국내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를 이용하여 해외로 출국한 인원 가운데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2005) '출입국현황' 자료와 한국관광공사(2005)의 '한국관광통계연보' 자료가 활용되었다. 조사결과,

내국인 국내항공사 이용객 가운데 96.56%가 내국인 해외관광객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국내항공사의 내국인 국제선 이용 판매실적 2,567,820백만원이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항공비용 지출총액으로 분석되었다.

<표 4-5> 내국인 해외관광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수
내국인 출국자수	9,139,314
관광객수	8,825,442
관광객비율	96.56%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추계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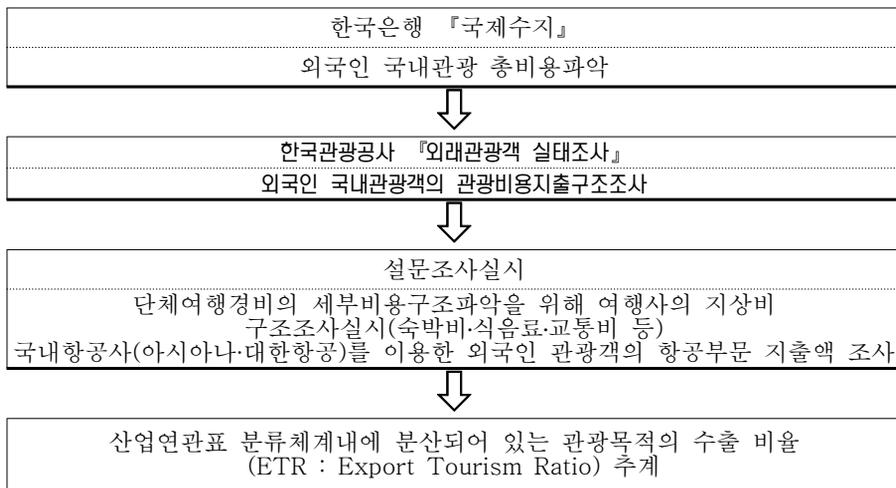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총액 : 18,749,675 백만원	=	내국인 국내관광 총비용 : 14,208,206백만원 +
		관광목적의 내구재 소비총액 : 1,973,649백만원 +
		국내항공사 이용 내국인 해외관광객 항공비용 지출총액 : 2,567,820백만원

- 2004년 전체 민간소비지출 : 400,696,500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 18,749,675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비중 : 4.68%
=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18,749,675백만원)/총민간소비지출(400,696,500백만원)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총계는 한국관광공사(2004) '국민여행실태조사'의 내국인 국내여행 총비용(14,208,206백만원)과 관광목적의 내구재소비총액(1,973,649백만원) 및 국내항공사를 이용한 내국인 해외관광객의 항공비용 지출총액(2,567,820백만원)을 합제한 금액으로 2004년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총액 18,749,675백만원으로 추계되었다. 전체 민간소비지출에서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68%로 분석되었다.

(2) 관광부문 수출

관광부문 수출, 즉 외국인 국내관광(Inbound tourism)시 지출되는 관광목적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파악하고 관광부문 수출이 전체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전체 수출 가운데 관광목적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 및 각 산업별 구성의 파악과정은 (그림 7-5)와 같다.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그림 4-6) 관광부문 수출 추계방법

관광부문 수출총액은 한국은행 ‘국제수지’ 자료의 여행수지(어학 및 연수제외)와 운수부문의 여객수지 합으로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2004년 기준 관광부문 수출총액은 9,002,53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text{관광부문 수출총액} = \text{국제수지의 여행수입} - \text{유학연수수입} + \text{여객운수수입}$$

관광부문 수출총액 (9,002,534백만원)	=	여행수입(6,548,412백만원)
		-
		유학·연수수입(18,340백만원)
		+
		여객운수수입(2,472,462백만원)

주: 2004년 평균환율 1US\$=1146.25원 적용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관광부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2%로 추계되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총수출 : 343,229,300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수출 : 9,002,534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수출 비중 : 2.62% <li style="padding-left: 20px;">= 관광부문 수출(9,002,534백만원)/전체수출(343,229,300백만원) |
|----------------------------------------------------------------------------------------------------------------------------------------------------------------------------------------------------------------------------------------------|

관광부문 수출총액에 대한 세부항목별 구성비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2004년 기준 외래관광객 지출비용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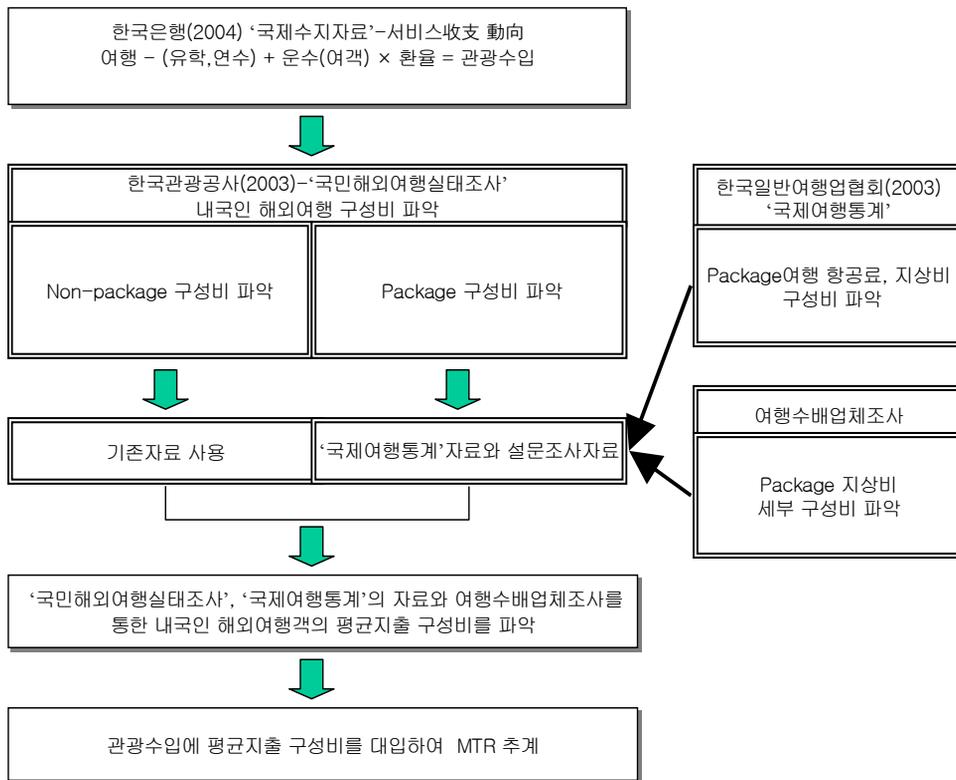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개별관광(61.89%)	단체관광(38.11%)
항공료	18.48	25.35
숙박비	30.69	9.83
쇼핑비	20.78	38.51
식음료비	14.45	9.46
교통비	6.84	5.92
오락관련지출	2.81	3.07
여행사지불비	1.66	2.19
문화관련지출	0.83	0.70
운동관련지출	0.32	0.35
입장료	-	0.64
가이드+ 기사팁	-	0.91
기타비용	3.14	3.07
총비용	100	100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3) 관광부문 수입

관광부문 수입추계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그림 4-7) 관광부문 수입 추계방법

한국은행(2005)의 '국제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관광부문 수입총액을 추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xt{관광부문 수입총액} = \text{국제수지의 여행지급} - \text{유학연수지급} + \text{여객운수지급}$$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한 관광부문 수입총액은 12,168,819백만원이다.

관광부문 수입총액 (12,168,819.25 백만원)	=	여행지급(13,738,952.5백만원)
		-
		유학·연수지급(2,850,953백만원)
		+
		여객운수지급(1,280,819.75백만원)

주: 2004년 평균환율 1US\$=1,146.25원 적용.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전체 수입 가운데 관광부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로 파악되었다.

- 2004년 총 수입 : 309,366,300 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수입 : 12,168,819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수입 비중 : 3.93%
= 관광부문 수입(12,168,819백만원)/총수입(309,366,300 백만원)

그리고 관광부문 수입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표 5-7>과 같다.

<표 4-7> 내국인 해외관광 소비구조

(단위 : %)

구분	구성비
단체여행상품비용	65.2
- 왕복항공료	38.3
- 지상비	26.3
·숙박비	9.1
·식음료비	3.9
·교통비	4.3
·입장료	2.3
·tip(가이드+ 기사)	2.3
·보험/출장	3.8
·영업이익(수수료)	1.2
쇼핑비	15.7
유홍/오락	8.9
기타비용	10.2
총비용	100.0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4) 관광소비지출 추계 종합

관광수요계정을 작성하기 위한 관광소비지출 규모 추계결과는 <표 4-8>에 정리된 바와 같다. 단, 여기서 공공부문의 관광소비지출 규모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연구원(2005)의 결과만을 추가한다.

<표 4-8> 관광수요계정 종합(2004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체산업	관광산업	구성비
민간소비지출	400,696,500	18,749,675	4.68
수입	309,366,300	12,168,819	3.93
수출	343,229,300	9,002,534	2.62
정부지출	92,382,992	1,763,400	1.91

주: 전체 정부지출은 2000년을 기준으로 함.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3) 공급측면

(1) 추계방법

한국 관광위성계정은 관광산업의 공급측면 즉 생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측면의 관광비를 추계한 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생산구조를 간접적으로 추계하는 접근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요측면에서 관광비율을 파악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부문 부가가치 추계 및 공급측면의 관광비율을 추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F = C + I + G + X - M$$

F : 최종수요, C : 소비지출, I : 투자지출, G : 정부지출, X : 수출, M : 수입

$$X=(I-A)^{-1}F, \quad X=(I-A+M)^{-1}F$$

X : 최종생산, A : 투입계수행렬

이와 같이 수요측면의 관광비를 파악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공급측면의 관광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 : Supply-side Tourism Ratio)

= 관광수요를 통해 유발된 부가가치/ 부가가치

관광부문 고용 추계는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용표(통합소분류- 178부문을) 기준으로 수요측면의 관광비율을 파악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관광부문 부가가치를 추계 및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으며, 2004년 기준으로 관광부문 고용을 추계하기 위해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자료가 추가적으로 이용되었다. 관광부문 고정자본형성 추계 역시 관광부문 고용추계방법과 마찬가지로 수요측면의 관광비율을 파악한 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악된 관광부문 부가가치를 추계 및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을 활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정자본형성표(통합중분류-77부문)가 기준 자료로 활용되었다.

(2) 관광부문 부가가치

수요측면의 관광비를 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SAS프로그램이용) 관광수요

가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관광부문 부가가치를 추계한 결과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17,605,834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9> 관광부문 부가가치

(단위 : 백만원, %)

구분	부가가치액	구성비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	12,273,823	69.71
관광부문 수출	5,332,011	30.29
관광부문 민간소비지출+수출	17,605,834	100.00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관광부문 부가가치 비중 즉 관광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을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은 2.26%로 분석되었다.

- 2004년 국내총생산(GDP) : 778,446,600백만원
- 2004년 관광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 : 17,605,834백만원
- 2004년 관광부문 부가가치 비중 : 2.26%
 = 관광에 의해 유발되는 부가가치(17,605,834백만원)/국내총생산(778,446,600백만원)

여기서 관광부문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게 분석된 것은 수요측면의 분석에 있어 관광부문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 민간투자 등이 추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광부문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 민간투자 등이 추계되었을 경우, 관광부문의 부가가치율은 2.26%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관광부문 고용

기존에 이루어진 관광산업의 고용추계는 주로 호텔·여행사·식음료산업 등 관광산업과 밀접한 산업의 고용을 전체 관광의 고용으로 추계하는 방법이 이용되어 왔으나, 이는 관광산업이 실제로 유발하는 고용으로 인식될 수 없다. 이에 한국관광위성계정에서는 숙박·음식·교통산업 등 대표적인 관광산업 몇 가지를 합계하여 관광산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관광산업이 유발하는 고용을 추계하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도출된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을 바탕으로 실제 관광산업이 유발하는 고용을 추계하였다.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은 산업연관표의 기본부문(404부문)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관광고용의 추계에는 산업연관표의 통합소분류(168부문)를 적용하는 통합부문조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 기준으로 작성된 산업연관표를 2004년 기준으로 보정하기 위해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3) 자료를 활용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된 관광산업의 고용자수는 852,471명으로 전체산업의 고용자수 16,915,995명 가운데 5.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0> 관광부문 고용현황

구분	고용자수(명)
전체산업	16,915,995
관광산업	852,471 (5.0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4) 관광부문 고정자본형성

2000년도에 이루어진 제1차 관광위성계정의 관광고정자본형성추계에는 통계청의 국부통계자료가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2005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의 관광고정자본형성은 관광고용의 추계방법과 마

찬가지로 한국은행은 산업연관표의 부속표인 고정자본형성표의 통합중분류(71 부문)를 바탕으로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을 적용시켜 관광 고정자본형성을 추계하였다. 즉,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 고정자본형성의 산업별(96)×자본재(71)별 값에 공급측면의 관광비율(STR)을 곱하여 관광부문 고정자본형성을 추계하였다.

우리나라 전산업의 고정자본형성총액은 182,214,304백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관광부문 총고정자본형성액은 8,282,029백만원으로 전체 고정자본형성의 약 4.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관광부문 고정자본형성 현황

구분	고정자본형성액(백만원)
전체산업	182,214,304(100.00%)
관광산업	8,282,029(4.5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5) 공급측면 종합

관광공급계정의 분석, 즉 관광산업의 생산구조파악을 위해 관광부문 부가가치, 고용 및 고정자본형성의 추계가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4-12>와 같음

<표 4-12> 관광공급계정 종합

구분	전체산업(A)	관광산업(B)	구성비율(B/A)
부가가치 (백만원)	778,446,600	17,605,834	2.26%
고용인원 (명)	16,915,995	852,471	5.04%
고정자본형성 (백만원)	182,214,304	8,282,029	4.54%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 인용.

제5장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및 과정

1.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과제도출

1) 사례분석 통한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시사점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관광위성계정과 지역관광위성계정 개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① 관광위성계정 TSA 작성의 필요성 공감 증대,
- ② UN의 신 국민계정체계(SNA1993)에 부합한 TSA 작성기준 준수의 필요성,
- ③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 및 작성권고안에 입각하여 TSA 작업,
- ④ 자국의 환경을 반영한 TSA 작성과정의 유연성(flexibility) 강조,
- ⑤ 관광경제계정(TEA)에서 관광위성계정(TSA)으로의 진화,
- ⑥ 수요 측면의 데이터 기반 공급 측면 계정 작성,
- ⑦ 산업분류 및 상품분류기준의 조정과정 필요,
- ⑧ 국민계정 중 투입산출(IO)체계 내 공급-사용표의 적극적 활용 등.

먼저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국가들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로 관광관련 정책수립 및 기업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그간 체계적으로 생산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위성계정은 기본적으로 관광관련 경제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계정과 관광위성계정의 관계를 감안할 때, 관광위성계정은 SNA1993 기준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UN의 국민계정체계를 근간으로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함으로써, 관광부문의 국가(또는 지역)간 비교는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관광위성계정의 객관성과 연관되는 것이다.

세계 각국들은 OECD나 WTO 등의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는 안에 따라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고 있다. 이는 주로 각국이 처해있는 환경이나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에 많은 차이가 존재함에 기인하며, 국제기구들에서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각국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토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들 사이의 기준안 역시 표준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의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의 경우 이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관광위성계정 작성 지침이 제시되고 이를 통한 작업이 각국에서 이루어졌을 때, 관광위성계정은 비로서 국가(또는 지역)간 비교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서 관광위성계정의 가치는 보다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에서는 기존 WTO의 권고안과 달리 국내 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WTO의 기존 권고안에서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내외국민들의 관광소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본토양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국제기구들에서 자국의 환경을 반영한 TSA 작성과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기존 관광경제계정(TEA)에서 관광위성계정(TSA)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관광위성계정의 표들을 채워나가는 정도 역시 국가별로 상이하다. 이는 주로 TSA 작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구축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위성계정 작성은 수요 측면의 계정과 관련된 관광소비지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 측면의 계정을 작성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의 데이터는 주로 상품 단위의 분류체계가 적용되는 반면, 공급측면은 산업분류체계 중심의 데이터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분류 및 상품분류기준의 조정과정 필요한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관광위성계정을 작성 중인 국가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발생하나, 대다수의 경우 국민계정 중 투입산출(IO)체계 내 공급-사용표를 이용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 활용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CEC, OECD, WTO and UN(2001) 등에서는 관광상품과 관광산업의 유형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이로부터 공급계정 즉,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나 관광부가가치, 관광 GDP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이나 그 외 항목들 역시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캐나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국가단위의 관광위성계정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완료 또는 시도하고 있다. 캐나다의 지역 관광위성계정(PTSA)는 주로 CEC, OECD, WTO and UN(2001)의 TSA 작성방법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 단위에서 지역간 관광거래를 포함한 국내 관광소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가단위의 TSA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PTSA 내 국내 관광소비(domestic demand)가 당해 지역을 찾는 내국인(지역주민+ 타지역주민)과 외국인 방문객들의 수요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들의 표준화된 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관광위성계정 KTSA는 OECD보다는 주로 WTO의 권고안을 채택하고 있다.²²⁾ 특히 수요계정에 포함된 데이터의 처리 및 구축과정은 WTO

22)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초창기와 달리 OECD와 WTO 등의 기구들은 점차 TSA에 관련되어 통일된 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CEC, OECD, WTO and UN 2001). TSA 작업이 관광경제 통계 작성을 위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안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측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급계정을 작성하는 과정이 불분명하다. 구체적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의 보고서에는 이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생략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투입산출모형(IO model)의 총생산액과 최종수요와의 관계만을 열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이 보고서에서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분리하여 개별산업의 관광비(tourism ratio)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공급측면 관광비(STR)의 도출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에서는 관광계정을 바탕으로 계산된 관광수요를 통해 유발된 부가가치를 계산함으로써 STR(=관광부가가치/부가가치)을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다(p.146).

$$X = (I - A)^{-1}F \quad (5.1)$$

X : 최종생산, F : 최종수요, A : 투입계수행렬.

만일 부가가치계수의 대각행렬(\widehat{AV} , 여기서 $AV = (av_1, \dots, av_n)$, $av_j = VA_j/X_j$)을 상기 식에 대입함²³⁾으로써 관광수요를 통해 부가가치가 계산되었다면, 그것은 관광상품(또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부가가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재화와 상품의 수요로부터 유발된(induced) 부가가치일 뿐이다. 즉, 국제기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나 관광부가가치 등의 측정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구축과정에서 KTSA에 적용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충남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들의 표준안이라 할 수 있는 CEC, OECD, WTO and UN(2001)의 권고안과 캐나다의 PTSA 작성방법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단, KTSA의 수요측면

적으로 보완 발전되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TSA 작업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할 수 있다.

23) 여기에는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세부적인 방법이 존재함.

계정작성에 이용된 한국관광공사나 한국은행의 조사발표 자료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별도조사 자료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임재영과 류종현(2010)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그 산업의 산출액과 일정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한다면, 당 산업의 전체 산출규모 중 얼마나 관광소비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경우 각 산업부문별로 관광부가가치는 계측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5, 20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요측면의 관광비(tourism ratio = 업종별 관광소비액/업종별 총산출액)는 관광부가가치 측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A^T = AV \cdot (I - A)^{-1} \cdot F^T,$$

VA^T : 산업별 관광부가가치 벡터, $(I - A)^{-1}$: IO 승수행렬,

AV : 부가가치계수행렬, F^T : 산업별 관광소비액 벡터.

그러나 이 보고서들에서는 위 식을 통해 각 산업부문별로 관광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그 결과를 통해 공급측면의 관광비(supply side tourism ratio)(= 업종별 관광부가가치/업종별 전체 부가가치)를 추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부가가치는 "관광소비를 통해 유발되는(induced) 부가가치"로서, 이를 곧바로 방문객들의 관광소비품목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관광부가가치로 간주하는 것에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굳이 SNA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는 그것들이 중간재와 최종재로 수요되는 총 규모와 동일하다²⁴⁾. 따라

24) 산업연관표(IO table)의 각 산업부문별 행합(row sum)과 열합(column sum)이 일치하고(Miller and Blair 1975, 외),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에서 각 부문별 수입(receipts)과 지출(expenditure)의 합이 일치한다(Pyatt and Round, 1985)는 점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서 굳이 행렬(matrix)과 벡터(vector)들로 구성된 식이 아니라 수요측면의 관광비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조사자료에 각 산업부문별로 도출되는 부가가치 계수(coefficients of Value-Added)(= 산업별 부가가치/산업별 총생산액)만을 대입해도 각 산업별 관광부가가치는 추계될 수 있다.

참고적으로 OECD에 제출된 세계 각국의 TSA 결과보고서에도 우리나라만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관광비를 제출하고 있다(OECD, 2000). 이러한 내용은 KTSA의 작성 중 각 산업부문별 관광부가가치의 추계결과 및 과정에 의견조정과 수렴과정이 필요함을 가리키는 것이다.”(임재영 · 류종현, 2010, pp. 352-353.)

관광객들에 의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대해 알고 있고, 또 그 산업의 생산규모 중 얼마나 관광객들에 의해 소비되었는지 알고 있다면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added, TVA)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value-added of tourism industries)의 측정은 그 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생산함수적인 특성²⁵⁾만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소비지출 대상의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에 각 산업 부문별로 그 산업 고유의 부가가치 계수나 고용자 투입계수 등을 적용하면 관광부가가치와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는 쉽게 측정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경우 도출되는 관광부가가치나 관광고용의 규모는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방법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제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식적으로 관광객들의 소비품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산업들의 산출물도 관광관련 상품이라고 단정하는 오류를 제거해 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강원발전연구원(2007)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동계스포츠 수요자의 소비지출 자료를 통해 추계한 강원도 동계스포츠 관련 산업의 생산(부가가치 포함)과 고용규모는 <표 5-1>에 정리된 바와 같다. 2005년 기준으로 강원도의 총 생산 규모는 44조 7천 5십 8억 원이 지역경제

25) 산업연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산업부문별 부가가치 투입계수를 의미하며, 결국은 산업생산과정에서 생산액과 창출되는 부가가치와의 관계를 나타냄. 이러한 관계식은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로부터 쉽게 확인됨.

의 전체규모라고 할 수 있으며, 2008/2009시즌을 기준으로 강원도를 방문한 동계스포츠 수요자에 의해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규모는 지역경제 전체 생산액의 2.1%에 해당하는 9천4백7십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기준 강원도 전체 GRDP 2.2%에 해당하는 513.5십억 원의 부가가치가 강원도 내에서 이루어진 동계스포츠 관련 소비로부터 창출되었다.

고용과 관련된 내용 및 이외 지역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별 동계스포츠 관련 산업활동 역시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동계스포츠 관련 소비지출의 조사과정에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의 품목이 보다 세밀하게 구분되었다면 보다 다양한 산업활동의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본 과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강원발전연구원(2007) 등의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 강원도 동계스포츠 관련 산업생산 규모 추정 결과

구분	2005년	08/09	관광비 (B/A)	부가가치		고용	
	생산액 (A)	동계스포츠 소비지출(B)		2005년	동계스포츠	2005년	동계스포츠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십억원)	(천명)	(천명)
1.농림수산물	2,498.4	-	-	1,524.8	-	115.7	-
2.광산품	961.1	-	-	548.3	-	7.5	-
3.음식료품	4,115.0	-	-	1,880.2	-	12.6	-
4.섬유및가죽제품	61.2	-	-	14.3	-	1.1	-
5.목재및종이제품	98.8	-	-	22.7	-	1.2	-
6.인쇄,출판및복제	32.6	-	-	15.7	-	0.5	-
7.석유및석탄제품	61.3	-	-	-0.4	-	0.1	-
8.화학제품	578.6	-	-	186.5	-	3.0	-
9.비금속광물제품	2,111.6	-	-	584.1	-	6.2	-
10.제1차금속제품	285.3	-	-	54.8	-	0.2	-
11.금속제품	192.8	-	-	49.5	-	2.2	-
12.일반기계	238.7	-	-	70.3	-	1.5	-
13.전기및전자기기	457.4	-	-	106.4	-	2.7	-
14.정밀기기	336.1	-	-	69.5	-	1.9	-
15.수송장비	865.6	-	-	215.1	-	3.1	-
16.가구및기타제조업제품	104.2	-	-	33.4	-	1.5	-
17.전력,가스및수도	447.1	-	-	261.9	-	1.0	-
18.건설	6,087.4	-	-	2,772.9	-	61.3	-
19.도소매	2,087.2	52.4	0.025	1,256.4	31.6	79.8	2.0
20.음식점및숙박	2,102.8	434.5	0.207	1,152.6	238.2	61.1	12.6
21.운수및보관	1,669.3	150.6	0.090	829.7	74.8	22.5	2.0
22.통신및방송	1,422.3	-	-	700.3	-	5.5	-
23.금융및보험	1,637.4	-	-	883.1	-	16.3	-
24.부동산및사업서비스	3,157.3	-	-	2,272.6	-	21.9	-
25.공공행정및국방	6,389.4	-	-	4,515.0	-	49.4	-
26.교육및보건	3,862.2	-	-	2,630.6	-	66.1	-
27.사회및기타서비스	1,711.1	310.0	0.181	932.3	168.9	34.0	6.2
28.기타	1,133.5	-	-	-	-	-	-
(소계)	44,705.8	947.6	0.021	23,582.5	513.5	579.9	22.8

2.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 및 과정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제기구들의 표준지침을 적용하여 지역경제 단위에서 「충남 관광위성계정(Chungnam tourism satellite accounts, CNTSA)」을 작성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작성되는 충남 관광위성계정으로부터 충청남도의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규모, 그리고 관광소비지출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단, 국내외의 관광위성계정 개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광위성계정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먼저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다양한 관련 자료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본 과제에서 수행되는 지역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이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본격적인 충남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한 선행적 연구작업이 필요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금년 2010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인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기구들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적인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지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과 이를 통한 충남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본 과제의 특성 상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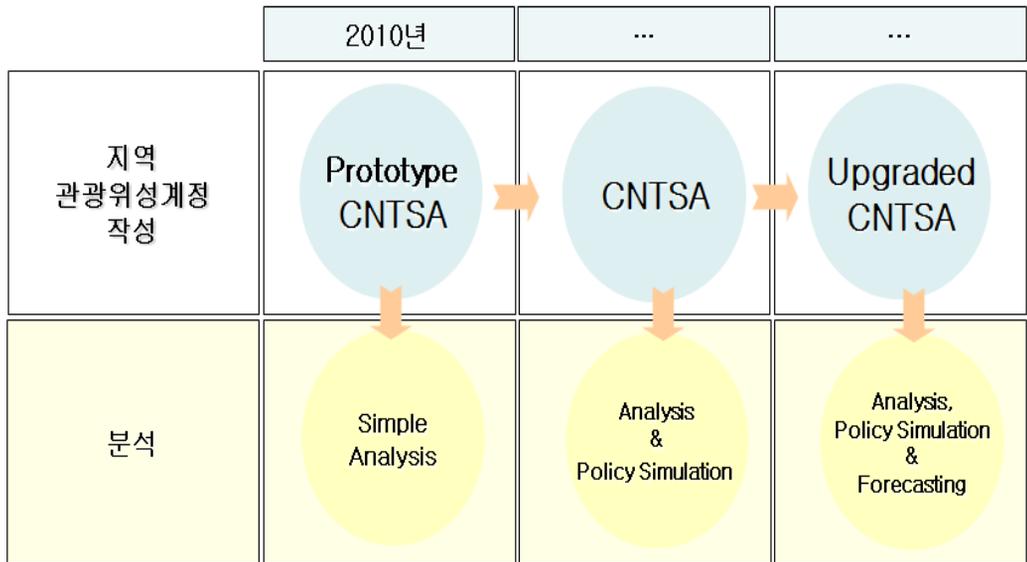
- ① 충남 관광위성계정(CNTSA)의 작성,
- ② 충청남도 관광산업의 경제적 실체 분석.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향후 지속적인 확장 및 보완의 여지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단계의 구분은 주로 관광위성계정 내에 포함된 각 항목들의 구체화 정도와 연관된다.

먼저, 2010년의 경우에는 시험적으로 prototype의 CNTSA의 작성과 이를 통한 간단한 경제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결과는 주로 작성되는 관광위성계정의 현실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서 제시된다. 여기서는 주로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 현실적 여건을 바탕으로 CNTSA 작성의 기본 틀을 마련·제시함으로써 향후 완성도 높은 CNTSA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단, 본 단계를 통해 제시되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에서 작성하고 있는 지역 관광위성계정인 PTSA²⁶⁾의 항목들을 포괄한다. 현재 입수가 가능한 지역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캐나다의 PTSA에 국한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한다.

26)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ourism Satellite Accounts for Canada.



(그림 5-1) 단계별 연구내용

본 과정을 통해 구축되는 관련 D/B 및 노하우를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작성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난 후 다양한 측면에서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확장 및 개선가능성이 검토되며, 정기적으로 CNTSA가 작성된다.

일단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하면,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및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흐름을 포함한 제반 경제적 효과는 TSA를 구성하는 각 표들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곧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가 정기적으로 장기간 작성 구축되었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분석 및 예측, 그리고 정책시뮬레이션은 가능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CNTSA의 지속적 작성은 관광관련 시계열적·횡단면적 경제통계의 구축이 이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rototype CNTSA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본 단계의 특성상, 이를 이용한 구체적인 관광경제 분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관광을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와 고용,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를 포함한 관광소비지출의 규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경제분석(simpl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존에 생산된 전국 관광위성계정 및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그의 현실적합성 여부가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 과정에서 작성되는 CNTSA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PTSA 경우와 같이 전국 TSA에 포함된 모든 지역들 사이의 거래를 포함하므로, 개별 지역들의 관광소비지출 및 부가가치, 고용 등의 규모의 합은 전국 합과 일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완성된 CNTSA 결과의 현실적합성은 각 항목별로 전국 단위에서 작성된 관광위성계정 결과치와의 일치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상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sum_r RTSA_i^r \begin{pmatrix} > \\ = \\ < \end{pmatrix} KTSA_i \Leftrightarrow CNTSA \text{ 현실적합성 } \begin{pmatrix} \times \\ \circ \\ \times \end{pmatrix} \quad (5.1)$$

RTSA: 지역 관광위성계정, *KTSA*: 전국 관광위성계정,

r: 지역(*r*=충남, 기타), *i*: TSA 구성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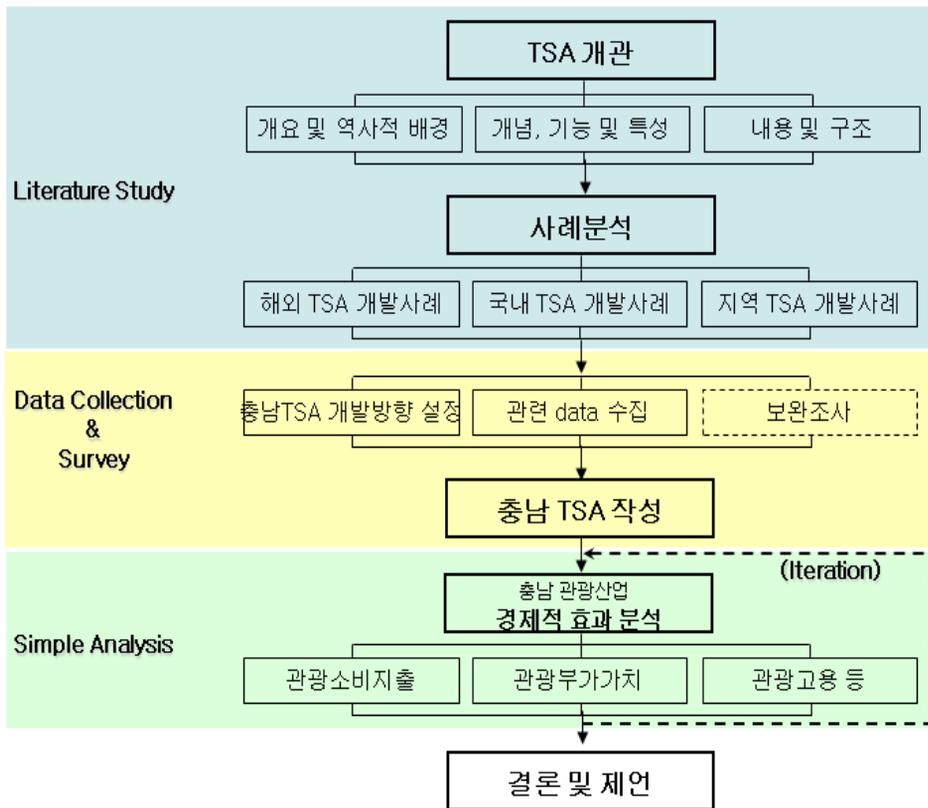
(*i*=부가가치, 고용, 관광소비지출 등).

그리고 앞의 식(5.1)의 반복과정(iteration)을 통해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현실적합성은 더욱 제고될 수 있다.

(2) 연구방법

지역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3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특성 상 연구방법은 차례대로 크게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와 ‘자료수집(data collection) 및 TSA 표 작성’과 보완조사, 그리고 단순 경제분석(simple economic analysis)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해 CEC나 OECD, 세계관광기구 등의 국제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관광위성계정의 개요와 국내외 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그리고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사례 등이 검토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충남 관광위성계정, 즉 CNTSA의 작성방향은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다음은 CNTSA의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자료수집과 일부 보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사이다. 일단 TSA의 작성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관련 자료의 구축이 이루어진 후,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그림 5-2) 연구의 진행과정

마지막으로 작성된 CNTSA를 이용하여 간단한 경제분석을 수행하고, 도출된 결과와 기존의 연구결과를 비교하게 된다 (식 5.1 참조). 이 과정을 통해

략될 수 있다. 이 작업은 향후 본격적인 충남 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에서도 추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연구 범위

계속 언급되어 온 바와 같이 국민경제 차원의 관광위성계정과 지역경제 단위의 충남 관광위성계정의 주된 차이점은 지역간 거래(inter-regional transaction)가 계정 상에 명확하게 반영되느냐 여부이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국민계정과 지역계정(regional account)의 차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²⁷⁾. 특히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권(his/her usual environment)을 벗어나 다른 장소로 여행하는 사람”들로 정의²⁸⁾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소비활동은 분명히 관광객들의 거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목적지(tourism destination)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과 주로 관광목적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관광객들의 거주지가 아니라 관광목적지와 그곳까지 가기위한 중간지역(주로 경유지)에서 발생하는 타지역 관광객들의 소비활동은 당해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간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²⁹⁾ 물론 관광객들의 소비는 관광목적지 외, 즉 여행 전이나 후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작성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27) 지역경제는 국민경제와 달리 개방성(openness)을 전제로 함. 이는 국가 단위와 다르게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지역들 간에는 재화와 서비스 등의 흐름뿐만 아니라 금전의 흐름(monetary flow), 즉 지역간 거래에 제약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임. 이에 따라 지역경제 단위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과정 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 등에서 지역간 거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28) 관광과 관광객(또는 방문객) 등의 정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국제기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공간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활동의 개념이라는 점에는 일치하고 있음. 관광의 정의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 설명이 제시됨.

29) 또한 당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 외에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중간재 및 원자재 등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이루어져야 할 것은 관광부문의 지역간 거래를 규명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간 거래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충남 관광위성계정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2개 이상 지역들 사이의 거래가 나타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과정에서 충청남도를 포함한 16개 광역 시도 또는 6대 권역 간의 거래관계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2006a)에서는 내국인 국내관광 O/D를 16개 광역 시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2007a)의 「지역 산업연관표」에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지역의 구분을 6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³⁰⁾ 그러나 prototype CNTSA의 작성을 위한 본 연구의 특성 상, 여기서는 전국을 충청남도와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여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두 지역간의 거래만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도록 한다. 각 지역에 해당하는 광역 시도별 행정구역은 <표 5-1>에 정리된 바와 같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충남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이 이루어지는 시점부터는 현재와 같이 충남과 충남을 제외한 2개 지역간의 관광거래가 아니라 충남과 충남 제외 15개 광역 시도 사이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규명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합적인 지역관광위성계정은 제시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충남만이 아닌 강원도와 전라북도 등의 각 지역발전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5-2> 지역의 구분

구분	해당 광역 시도
충남 지역	충청남도
기타 지역	충청남도 제외 15개 광역 시도

관광위성계정은 기본적으로 관광활동과 관련된 산업과 그들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30) 한국은행(2007a)에서는 전국을 수도권, 충남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의 6대 권역으로 구분한 지역 산업연관표를 수록하고 있음.

소비측면에서, 국내에서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실태조사 통계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실태 조사는 외국인의 국내관광, 내국인의 국내 및 해외관광으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세 부분의 관광실태는 계속해서 조사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측면에서, 현재 산업별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구조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자료로는 국민계정 체계 내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단 관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부문별로 생산활동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현재 국민계정체계 내의 산업연관표가 유일무이하다 할 수 있다. 기존 우리나라의 관광위성계정 KTSA 역시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에 산업연관표가 활용되고 있다(OECD, 2000). 따라서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작성을 위해서 산업연관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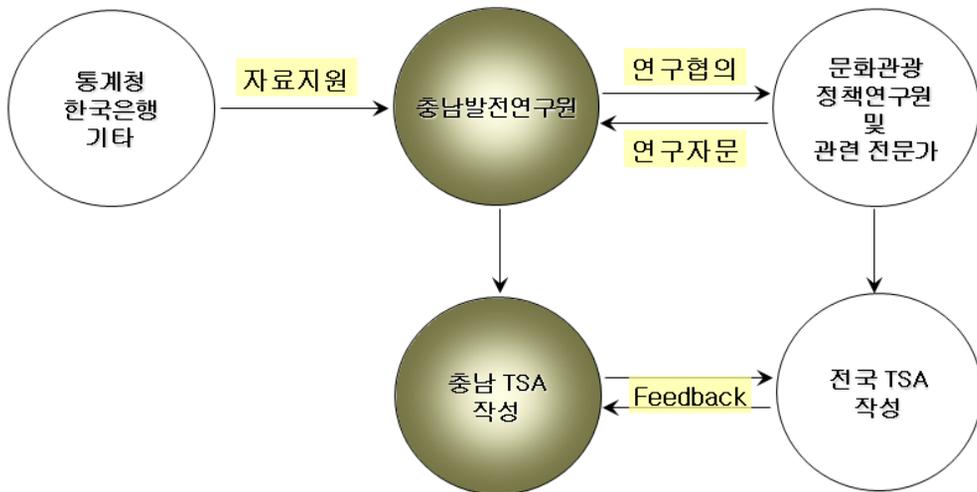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표를 정기적(매 5년 단위)³¹⁾으로 조사 발표하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를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한 지역 산업연관표(2005년 기준)를 조사 발표하였다.³²⁾ 이러한 자료이용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관광위성계정 및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의 기준년도는 2005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선도하는 대표적 국가인 캐나다의 PTSA(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SA)의 작성과정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31) 각 중간년도에 연장표를 발표함.

32) 과거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기관과 및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지역 산업연관표가 작성되어 지역경제 분석에 적용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나, 이들은 직접조사방법이 아니라 주로 간접적 방법에 의해 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채택함. 이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6개 광역시도로 구분된 2000년 기준 지역 산업연관표를 작성 배포함.

2) 연구 추진체계

충남 관광위성계정 CNTSA의 작성 및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실체규명을 위한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되나, 과제 성격 상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등의 자료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한 기존 한국 관광위성계정(KTSA)의 개발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와의 연구협의 및 연구자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충남 TSA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림 5-4) 연구 추진체계

참고적으로 본 연구는 (그림 5-2)에서 설명하였듯이, 그 특성 상 국민경제 단위와 지역경제 단위의 TSA에 대한 이해 및 각 항목들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권고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는 결정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강원발전연구원(2007)³³⁾에 제시된 TSA에 대한 설명

33) 강원발전연구원(2007),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을 통한 강원도 관광산업 규모 추정 연구」.

및 작성과정이 충청남도의 지역관광위성계정의 작성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진들³⁴⁾은 강원발전연구원(2007)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학술지 게재³⁵⁾를 위한 논문심사과정을 통해 상기 보고서의 내용을 발전 요약한 논문을 제출한 바 있다³⁶⁾. 단 이들의 연구는 강원발전연구원(2007)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공간적 범위가 강원도 지역경제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현재 진행 중인 본 연구는 강원발전연구원(2007) 연구 내용을 공간적으로 충청남도에 국한시켜 적용하는 것이므로, 내용 중 관광위성계정의 내용과 작성과정 등에 대한 설명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재영과 류종현(2010)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2007)의 한계를 보완 발전시키는 과정이 충청남도의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과정에 반영되어야만 하며, 작성결과의 현실적합성 제고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상의 내용은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강원발전연구원(2007)과 유사할 수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에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진은 강원발전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³⁷⁾, 지금까지와 같이 향후의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에 공간적으로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공동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34) 충남발전연구원의 임재영 책임연구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의 류종현 연구실장.

35) 대한관광경영학회지.

36) 임재영 류종현(2010),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한 강원도 관광부가가치 규모추정,” 대한관광경영학회지 「관광연구」, 제25권 제1호, pp. 349-368.

37) 2010년 11월 5일(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부연구원장과 경제산업정책연구실의 전현임 연구실장들과 각각 협의과정을 거침.

참고문헌

-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2004년 한국관광위성계정」.
- 문화관광부·한국관광연구원(2000),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 임재영 · 류종현(2010), “지역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한 강원도 관광부가가치 (TVA) 규모 추정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지 「관광연구」 제 25권 제 1호, pp. 349-368.
- 한국관광공사(2006a), 「2004년 국민여행실태조사」,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2006b), 「2005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2006c), 「2005년 국민해외여행 실태조사」, <http://www.knto.or.kr>.
- 한국관광공사(2005), 「2005년 국민여행 실태조사」, <http://www.knto.or.kr>.
- 한국은행(2007a), 「2003년 기준 지역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07b), 「2003년 기준 산업연관표」.
-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 한국은행(1997), 「1993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1993)」.
- 한국은행(1991), 「국민계정해설」.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1), Tourism Satellite Account: Recommended Methodological Framework.
- C. Barber-Dueck and D. Kotsovos(2002), "The Provincial and Territorial Tourism Satellite Accounts for Canada, 1996," Research Paper Catalogue No. 13F0063XIE, <http://www.statcan.ca>.
- CTC(2004), Study of the Canadian Tourism Satellite Account(comparison of TSA-RMF and CTSA).
- H. B. Kim(1992), "A Two Region Model of Growth in A General Equilibrium Framework,"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 Konttinen(2006), "Regional Tourism Satellite Account in Finland: Data,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 Paper to 8th International Forum on Tourism Statistics, 14-16 November 2006 in Spain.
- J. Zhang and C. Brandt(2006), "Regional Tourism Satellite Accounts-Data, methodologies and impact analysis," Paper to International Forum on Tourism Statistics, 14-16 November 2006 in Spain.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2000), Measuring the Role of Tourism in OECD Economies: The OECD Manual on Tourism Satellite Account and Employment.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a), Draft OECD Guidelines for a Tourism Satellite Account, DSTI/DOT/TOU/SAT(99)2.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9b), Draft OECD Guidelines for a Tourism Satellite Account: The Employment Module, DSTI/DOT/TOU/STAT(99)1.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1998), A Tourism Satellite Account for OECD Countries, DSTI/DOT/TOU/STAT(98)1.
- Pyatt and Round(1985), Social Accounting Matrix: A Basic for Planning, The World Bank.
- World Tourism Organization(2000),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Methodological Accounting-Methodology and Documentation.
- World Tourism Organization(1999),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The Conceptual Framework.
- World Tourism Organization(1998), Tourism Satellite Account(TSA).
- World Travel and Tourism Council(1998), 1996/7 WTTC Travel and Tourism Report.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임재영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10-05 ·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 위한 기초 연구

글쓴이 · 임재영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160(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139-7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